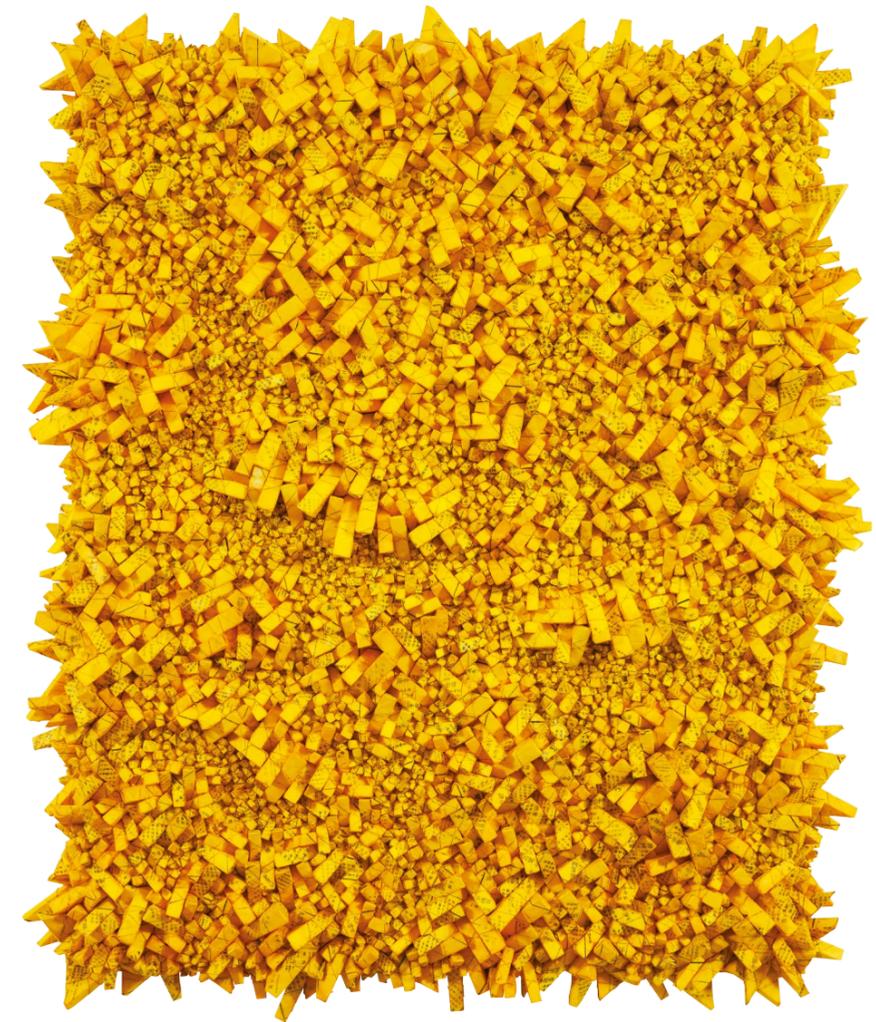


# 아주 좋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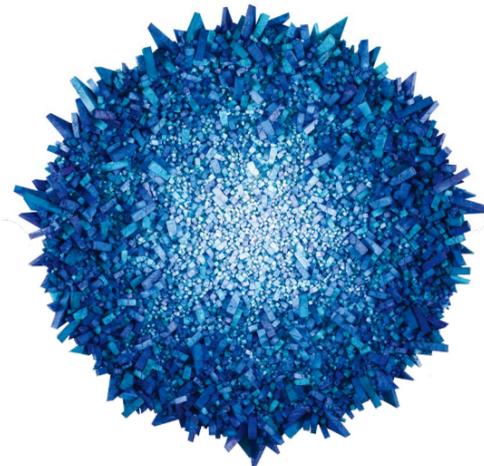
AJU BIENNIAL MAGAZINE  
2018 NEW YEAR • VOLUME 50



cover artist

## Chun Kwang Young

전광영



“한국적인, 고유의 정서로 세계와 소통하고 싶던 나에게 한약방 천장에 달린 약 봉지의 이미지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한 강렬한 느낌을 주었다. 그 후 그들은 내 작품의 새로운 단위가 되었다.” 20대에 미국 유학을 떠난 전광영은 자신의 기반을 이루던 동양의 인본주의와 새롭게 접한 서양의 이성주의 간의 강렬한 충돌을 경험한다. 이후 추상 표현의 길로 접어들어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한국의 정서로 세계와 소통하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 몸살을 앓던 그는 어릴 적 한의원을 찾던 기억을 떠올리고, 삼각형 조각을 한지로 감싼 작은 조형을 활용해 커다란 집합을 구성하는 작업 방식을 택하게 된다. 그는 생명체를 상징하는 작은 조각들을 캔버스에 붙이며 개체, 집단 간의 강렬한 충돌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의 작업이 우리에게 충격보다 온기로 와닿는 이유는 그 모습이 융합과 화해를 향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생동하는 세상의 모습, 그 자체가기 때문이다.





#### 융합을 향해 가는 아름다운 총돌

전광영의 작품을 구성하는 삼각형의 한지 조각은 한국적 정서가 깃든 단위이다. 또한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하나의 생명체다. 관점에 따라 정보의 기본 단위, 생명을 지닌 개체, 독립적 의미가 있는 사회적 사건, 역사적 사실이 될 수도 있는 이 조각은 세상을 구성하는 그 어떤 단위로도 해석된다. 전광영은 한지 조각을 활용해 캔버스 위에 보다 격하고 커다란 충격을 남기게 되는 총돌을 창조함으로써 갈등의 가능성을 사유한다. 각 개체가 지니는 이질적인 에너지는 총돌을 겪으며 새로운 힘과 진행 방향을 생성한다. 작가는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 세상 속에서 대립과 총돌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 화해와 융합, 조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Aggregation03-BJ001,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2003

앞표지. Aggregation13-AP018,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2013  
뒷표지. Aggregation17-FE008,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2017

## 전통, 그 가치에 오늘의 혁신을 더하다

많은 사람들이 빈센트 반고흐의 <해바라기>를 '빛을 배경으로 한 빛'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따뜻한 색채로 한결같이, 많은 이의 마음을 희망으로 물들여 온 덕분이겠지요. 낙천성, 자신감, 창의성과 무한한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색, 그리고 우리 삶의 다정한 동반자인 견공이 만나 밝고 활기찬 미술년을 열었습니다. 인간과 가장 오랜 시간 동고동락해 온 총명한 반려동물의 해에 「아주좋은날」도 50호를 맞아 그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좋은 매체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싶은 「아주좋은날」은 이번 신년호에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며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문화와 예술 이야기를 담으며 우리의 내일을 그려 보았습니다. 아주 먼 곳이나 아주 높은 곳을 상상하는 것은 막연한 일이지만 어제의 우리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심과 정성을, 오늘의 새로운 생각과 움직임을 담으며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려 합니다. 새해에도 아주 환한 희망의 빛과 더불어 여러분의 일상에 온기를 더하는 「아주좋은날」이 되겠습니다.

### CONTENTS

<b>Section 1. Art &amp; Life</b>	<b>gallery</b>	
	전통, 그 가치에 오늘의 혁신을 더하다	02
	<b>opinion</b>	
	'위라발'을 권하는 세상, 함께 그리는 행복의 선순환	10
	<b>insight</b>	
	끝나지 않는 음악,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12
	<b>people</b>	
	손글씨, 그 다정다감한 소통 캘리그래퍼 강병인	16
	<b>curation 1</b>	
	획기적인 발명품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명종	20
<b>Section 2. Now &amp; Moment</b>	<b>culture and the city</b>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이 사는 유별나게 아름다운 도시, 포틀랜드	22
	<b>special free time</b>	
	흔들리는 갈대, 걷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다	28
	<b>favorite things</b>	
유량을 꿈꾸는 그녀,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의 여가식미餘暇食美	32	
<b>scene of object</b>		
잘못 적은 이름, 행운을 선물하다 <아멜리에>와 몰스킨	36	
<b>curation 2</b>		
손목 위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스마트 워치	38	
<b>Section 3. Art &amp; Life</b>	<b>hotel stay</b>	
	리조트에서 만나는 어느 멋진 날	40
	<b>aju sharing</b>	
	아주 좋은 꿈터, 함께 심고 키워 가는 꿈	44
	<b>aju news</b>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48	
<b>reader's view</b>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52	

cover story



Aggregation13-AP018,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2013

“저 삼각형을 감싸는 한지는 보통 100년쯤 된 종이에요. 100여 년 전의 종이 한 장에는 여러 사람의 지문과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남아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히스토리고, 저는 그걸 한데 모아 싸고 붙여 가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차가운 스티로폼을 우리 종이 한지로 따스하게 감싸 생동하는 조형으로 구성하는 전광영의 작품을 보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나다움, 우리다움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여행, 「아주좋은날」은 그 여행길에 동행하며 즐거움을 더하겠습니다.

예술, 더 가까이

# Art & Life

“예술의 목적은 사물의 외관이 아닌 내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예술은 우리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 사막에 설치된 거울 집과 자연의 일부가 된 스테인리스 조각을 감상하며 그들이 던지는 질문에 집중해 보세요. 예술을 거울 삼아 내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고,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하는 일로 새해를 시작해도 좋겠지요. 우리는 나다움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균형 잡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고민해야 합니다. 클래식과 영화 음악을 조화롭게 구현해 낸 영화 음악 감독이나 전통적인 서예에 새로운 디자인을 가미한 아티스트의 이야기가 조화와 균형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Desert X installation view of Doug Aitken, Mirage, 2017, photo by Lance Gerber, courtesy the artist and Desert X

## MIRAGE

바로 오늘, 지금 여기를 반영하는 집, 미라지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여기, 자신의 예술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구축해 낸 아티스트가 있다. 미국의 예술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더그 에이킨은 2017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 지역의 사막 한가운데 자신만의 철학을 담은 거울 집을 지었다. 작업의 제목은 <미라지>로 신기루를 뜻하지만, 집 그리고 예술이 주변 환경, 나아가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매개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 만큼은 선명하다.

<미라지>는 1920~193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목장 스타일의 작은 집을 그대로 재현한 작품이다. 한때 캘리포니아 건축의 가장 친숙한 형태였으며 건축물이 풍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겼던 이 집은 더그 에이킨에 의해 거울로 재구성되며, 풍경을 끌어당기고 다시 밖으로 내비추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건축물과 풍경의 조화라는 본연의 주제를 재현하는 한편 자연과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의 순수하고도 근원적인 꿈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라지>는 경관을 흡수하고 반영하는 실물 크기의 만화경을 형성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건축의 형태는 흡수와 반영을 반복하며 주제와 대상, 내부와 외부, 심리적 측면과 육체적 측면 같은 대립적 개념을 지우고 순수, 근본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지붕에는 하늘이, 벽면에는 무한한 벌판과 산맥이 담기는 집. 자연과 함께 밝아지고 또 저무는 <미라지>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의 풍경을 거짓 없이 반영하는 가장 현대적인 작품이다.



gallery

Art & Life

**VITRA**  
 멈추지 않는 가구의 클래식, 비트라

가구는 사람과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물건이다. 사무실의 의자, 미팅 테이블, 휴식을 제공하는 소파. 한시도 떨어질 틈이 없기에, 가구 디자인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편안함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추어 빠르게 진화해야 한다. 비트라는 이토록 까다로운 가구 디자인을 선도해 온 브랜드다. 1934년 스위스 바젤의 가구 소매상으로 시작해 찰스 & 레이 임스, 베르너 팬톤과 같은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형태와 품질은 물론 모든 면에서 최고라 불리는 가구들을 선보여 왔다.

비트라는 내부에 디자인팀을 따로 두지 않는다. 외부의 프로 디자이너들과 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들의 전문성과 개성,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며 가구를 생산한다. 기능성과 심미성을 두루 갖춘 '비트라만의 디자인'이 가능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런 비트라에도 위기는 있었다. 1981년 대형 화재로 생산 공장이 잿더미가 된 것. 하지만 비트라는 위기에 임하는 자세마저 창조적이었다. 세계의 실력 있는 건축가들을 불러 모아 비트라의 본사이자, 생산 공장이며, 뮤지엄인 '비트라 캠퍼스'를 짓기 시작했다.

자하 하디드의 첫 작품인 비트라 소방서, 안도 다다오와 프랭크 게리의 첫 유럽 진출작인 콘퍼런스 파빌리온과 비트라 뮤지엄을 포함한 10개의 건축물은 보여 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비트라의 사무실, 생산 공장, 조립 공장 등 실용적 노동 현장으로 기능한다. 그 안에서 멈추지 않고 '아름답고 실용적인 가구'를 고민하고 생산하는 비트라의 직원들은 좋은 디자인, 건강한 기업의 철학은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Vitra Design Museum

Vitra Home Collection 2007 ©Vitra, photo by Tobias Madorn



## ANISH KAPOOR

삶 너머, 승고의 세계, 애니시 커푸어

이스라엘 박물관 앞에는 하늘과 땅을 뒤집어 반영하는 대형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다. 매끈하게 연마된 고풍택의 거울 표면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하늘과 거리의 풍경을 과감하게 뒤집어 낯설게 보여 준다. 세상을 재료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내는 이 작품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가우뚱하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현실 너머를 상상하게 된다. 단순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들여다보며 무언가 생각하게 만드는 이 작품은 애니시 커푸어의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이다.

인도계 영국인인 애니시 커푸어는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적 조형을 선보이며 인간과 삶,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져 왔다. 1995년부터 시작된 그의 거울 작업은 일반 거울과 달리 오목하거나 볼록하게 만들어져 주위 환경을 자유롭게 변형, 왜곡한다. 반사라는 속성을 통해 모든 공간을 담을 수 있는 동시에, 조각 위에 반영된 세계는 결국 그 어떤 공간의 실제 모습도 아니라는 점에서 역설적인 그의 작업들은 삶이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래서 늘 그 너머를 탐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애니시 커푸어가 세상에 펼쳐 놓은 거울 위에서 모든 것은 평화롭게 공존한다. 하늘과 땅, 동양과 서양, 물질과 비물질, 이성과 감성. 상반되는 개념들은 작품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며 무한한 움직임으로 확장되고, 그를 지켜보던 관람객들은 승고함마저 느끼게 된다. 관람객의 울림 또한 마찬가지로. 거울은 각 개인의 자유로운 감상까지 있는 그대로 포용해 우리 앞에 평등한 풍경을 펼쳐 놓는다. 애니시 커푸어가 탐구해 온 삶 너머, 그 승고한 세계는 각기 다른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는 조화의 세계가 아닐까.



©photo by Park Youngchae, ZIUM Art Elier Co., LTD

## JIBOKJAE

궁궐 속 작은 도서관, 집옥재

경복궁의 북쪽 끝, 가장 깊숙한 뒤쪽을 향해 걷다 보면 궁 안에 숨겨진 보물 같은 공간을 만나게 된다. 궁궐 속에 문을 연 작은 도서관, 집옥재는 1891년 고종 황제의 서재로 지어진 공간인데, 2016년 재개관해 3년째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오래된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요즘이지만, 집옥재의 발견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현대적 변화가 함께 만들 수 있는 가장 조화로운 모습을 우리 앞에 무한하게 펼쳐 놓기 때문이다.

“고종의 서재로 지은 집옥재는 중국풍의 입식 공간으로 되어 있다. 고종은 이곳에서 외국 사절을 맞이했는데, ‘중국식’이라기보다 ‘현대적’으로 지은 것이었다. 왼쪽으로는 전통 건물인 협길당을 두고, 오른쪽으로는 이층의 팔각누각을 달아 친구 양식이 현연히 어울리고 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설명과 같이 집옥재는 당시에 가장 현대적으로 지은 건물이었다. 하지만 건물을 찬찬히 살펴보면 선과 문양 등 우리 고유의 멋은 그대로 살아 숨 쉰다. 진보를 꿈꾸면서도 전통을 놓지 않는 지혜가 곳곳에 배어 있다.

오늘날의 집옥재 또한 여전히 전통을 기반으로 유연한 변화를 꾀한다. 가치 있는 자료들은 소중하게 배치되어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고, 이웃한 정자 팔각정은 담소를 나누기에 제격인 북카페로, 옆 건물 협길당은 열람실로 조성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은 사람이 전통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뤄 낸 사려 깊은 변화는 옥같이 귀한 보배를 모으는 ‘집옥재’의 의미와 만나 편안한 분위기와 가치를 전한다. 공간이 품은 지혜로운 빛은 오늘도 집옥재의 풍경을 환하게 밝힌다.

## ‘워라밸’을 원하는 세상, 함께 그리는 행복의 선순환

# WORK LIFE BALANCE

새해부터 목소리가 뜨겁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Work Life Balance’을 외치는 목소리다. 그런데 워라밸은 개인 차원에서 실현 가능할까? 나는 진정 집중하여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참된 일자리를 만드는 일, 진심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며 임할 수 있는 일. 기업과 개인의 상생 협력을 통해 워라밸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글 박남규

### 직장인의 새해 목표, 워라밸

“새해 목표요? 나인 투 식스(9 to 6,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정규 근무 시간을 준수하며 일하는 것)요. 올해에는 야근을 줄이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시작해 볼까 해요. 더 이상 일을 책임지느라 제 삶에 무책임해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3년 차 직장인 S씨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이 새해 목표라고 한다. 그냥 넘기기에 목소리의 볼륨이 심상치 않다.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 ‘들’인 것 같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 젊은 직장인 세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개인 생활보다 직장을 우선시 했던 과거 세대와 달리, 일 때문에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 여가, 성장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등장한 키워드지만, 워라밸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1970년대 말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미국에서는 1986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워라밸은 정부의 인구 정책 대안으로,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 방안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방안으로 활용되던 ‘국가-기업-개인’ 모두의 상생 전략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구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워라밸이 전하는 의미는 같다. 일과 그 외의 영역, 특히 가정이나 여가 생활에 에너지와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여 만족스러운 상태를 가지는 것이 워라밸의 목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워라밸이라는 말에는 선순환의 구조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업무 시간을 오토이 보장해 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개인이 적정 시간을 준수해 일한다면 회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 회사는 취업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개인의 경우 자신이 보람 있게 해낼 수 있는 일을 근무 시간에 집중하여 퀄리티 있게 해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적정 시간 열심히 일한 후에 일찍 퇴근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 진다면 인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질적인 문제는 일의 성격이다. 기업은 직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참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인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서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는 워라밸을 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어려운 과제처럼 느끼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직장인들은 왜 일과 삶의 조화를 소리 높여 외치게 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 진정한 워라밸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즐겁게, 적정 시간 행복하게 일하며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 개인과 기업, 사회는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지 말이다.

### ‘일’의 본원적 가치와 참된 일자리

화장품을 판매하는 ABC기업이라는 가상의 회사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ABC기업은 점심시간만 되면 직원들의 불평이 매우 높아진다. 구내식당이 300명 넘는 전체 직원을 한 번에 수용하기에 너무 작기 때문이다. 점심 식사에 대한 명확한 수요는 있는데, 구내식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ABC기업의 사장은 자체 외식 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외식 사업에 진출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도 무방할 것 같다. 300명 가까운 직원의 점심에 대한 자체 수요가 외식 사업 진출에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된 일자리와 상생 협력의 관점에서 판단해 보면 ABC기업은 외식 사업에 진출하지 말아야 한다. 외식 사업은 ABC기업의 본원적 가치와 무관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ABC기업의 ‘업’은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고, ABC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직원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외식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300명의 직원을 넘어, 수천 혹은 수만 명의 고객에게 동일한 맛과 영양을 보장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결국 그 일을 함께 도모하고 진행할 ‘사람’이 있느냐의 문제다. 설령 ABC기업이 외식 사업에 진출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ABC기업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에게 적당한 급여를 지급하기도 쉽지 않게 된다. 이럴 경우 ABC기업은 비정규직 혹은 파트타임을 고용해 급여를 줄이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라면 직원들이 참된 일자리를 가지고 만족하며 일하기는 점점 힘들어진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과 개인의 상생 협력 문제는 특정 정책이나, 일시적인 사회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영자들이 기업의 본원적 가치에 집중하고, 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발굴, 해당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 건강한 일자리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 또한 주인의식과 함께 집중하여 근무하며 기업과 같이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일의 보람이 늘어나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 하는 행복의 선순환이 시작된다.

일과 삶의 밸런스는 비단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에서도 당연히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가치다. 기업은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 즉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개인 또한 기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며 서로 밸런스를 맞춰 가야 선순환을 그릴 수 있다. 진정한 워라밸이 이뤄질 때 행복지수도 자연히 올라갈 것이다. 행복의 선순환을 그리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모두가 함께 시작해야 한다.

박남규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창의성연구소 소장으로 창조 경영에 대해 연구하고 저술한다.

## 끝나지 않는 음악,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서양의 형식에 동양적 정서를  
접목한 작곡가, 윤이상

서양 현대 음악에 동양적 정서를 접목해 세계 음악계의 찬사를 받은 작곡가 윤이상은 1917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통영에서 성장했다. 보통학교 3학년 시절, 학교에서 처음 들은 풍금 소리에 가슴이 뛰었던 소년은 소리로 집을 짓는 작곡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우여곡절 끝에 윤이상은 쇤베르크의 12음계 기법에 한국 정악의 색채를 담은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 대편성 관현악곡 〈예악〉 등을 발표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집중시킨다. 뮌헨 올림픽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위촉받은 오페라 〈심청〉을 통해 거장의 반열에 오른 그는 빼어난 음악성은 물론,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예술가였다.

위대한 음악가들은 선배들이 축적해 놓은 음악적 전통과 형식에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 영감을 더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낸다. 기존의 것에 새로운 감각을 융합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것이다. 서양 음악에 동양적 색채를 입혀 독창적인 창조물을 탄생시킨 현대 음악의 거장 윤이상, 클래식 음악에 새로운 표현 기법을 더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화 음악을 완성해 낸 엔니오 모리코네. 시간이 흘러도 위대한 두 아티스트의 삶과 이야기는 끝날 줄 모른다. 끊임없이 우리 곁에 머물며 마음을 울린다.

글 백규선 일러스트 민지홍



영화 음악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음악가, 엔니오 모리코네

영화 음악을 독립적인 예술의 장르로 확립한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는 1928년 로마에서 태어나 재즈 트럼펫 연주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12세 때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에 트럼펫 전공으로 입학한 그는 낮에는 클래식과 작곡을 공부하고, 밤에는 트럼펫을 연주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1958년부터 방송사에서 TV, 라디오 편곡 업무를 담당하던 그는 우연히 영화 〈황야의 무법자〉의 음악을 작업해 특유의 과감하고 유머러스한 스타일로 할리우드를 사로잡게 된다. 이후 500여 편의 아름다운 영화와 함께 기억된 엔니오 모리코네의 선율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온기와 감동을 전한다.

“저는 한국 음의 이미지를  
서양 현대 작곡 기법의  
도움을 빌려 음악화합니다.  
저는 오직 저만의 음악을 합니다.”



**역경 속에서 성장한 현대 음악의 거장**

1917년 태어난 윤이상은 어린 시절을 통영에서 보냈다.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평안을 얻던 소년은 14세 무렵 작곡 공부를 시작했고 1935년 18세 되던 해에 일본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음악인의 길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오사카 음악학교에 진학해 2년간 공부했지만 어머니의 부고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후 통영과 부산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윤이상은 여러 학교의 교가를 작곡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간다. 일제의 감시가 엄격하던 1944년 조선 가곡 작곡 악보가 왜경에게 발각되어 두 달 동안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창작을 향한 그의 열정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꺾일 줄 몰랐다.

윤이상은 결국 39세의 나이에 다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과 서베를린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공부한 그는 1959년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과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으로 유럽 현대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하지만 1963년

북한을 방문한 일이 계기가 되어 19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시작한다. 하지만 윤이상은 옥중에서도 오페라 <나비의 미망인>을 작곡하며 창작 혼을 불태운다. 그리고 그런 그의 음악을 사랑한 해외 음악가들과 독일 정부의 조력에 힘입어 1969년 석방된다.

**감응하는 예술가, 끝나지 않는 감동**

석방 이후 독일로 건너가 작품 활동을 계속하게 된 윤이상은 1972년 뮌헨 올림픽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위촉받은 오페라 <심청>을 계기로 단숨에 거장의 자리에 오른다. 이후 서양 현대 음악 기법을 통한 동아시아적 이미지의 표현, 한국 음악의 연주 기법과 서양 악기의 결합이라는 찬사를 받던 그는 1955년 독일에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한다.

2017년은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해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의 고향 통영의 동백나무가 독일에 있는 그의 묘 옆에 심어졌고, 그의 정신과 음악에 대한 올바른 인

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2017 통영국제음악제에서, 한국 전통 악기인 생황과 박이 서양식 관현악에 녹아 들며 동서양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준 그의 음악이 다시 한 번 울려 퍼졌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150여 편의 작품을 남긴 작곡가, 서양의 음악 문법에 동양적 색채를 더한 빼어난 예술가, 현실 세계의 실존적 문제를 외면하기보다 응시하며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활동가. 윤이상의 이야기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한다.

<류통의 꿈>, <나비의 미망인>, <요정의 사랑>, <심청>으로 대표되는 오페라, <바라>, <무악> 등 20여 편의 관현악곡, <동서의 단편> 등 40여 편의 실내악곡, 교가와 가곡에까지 이르는 150여 편의 작품으로 남은 열정적인 음악가.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과 세상의 아픔에 감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낸 그의 음악은 영원히 우리 곁에서 끝나지 않는 감동을 전할 것이다.

**영화 음악의 금기를 깬 클래식 음악가**

클라리넷이 휘몰아치듯 연주를 하면 휘파람 소리가 이에 화답하고, 선 굵은 멜로디를 전기 기타가 연주할 때면 오케스트라 음악에만 익숙했던 관객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빠져든다. <황야의 무법자>에 흐르는 음악은 전기 기타와 남성 코러스, 가사 없는 허밍과 휘파람 등 할리우드 영화 음악이 금기로 여기던 요소들을 과감하게 활용하며 영화 음악이 극의 분위기와 메시지를 고조시키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임을 증명한 사례다. 이외에도 <시네마 천국> 속 토토의 애잔한 표정과 함께 흐르는 잔잔한 멜로디를 완성하며 영화 음악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음악 감독 엔니오 모리코네는 본래 정통 클래식을 공부하고 작곡자, 지휘자, 연주자로 활동하던 음악가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엔니오 모리코네는 실용적인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방송국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 간다. 그가 영화 음악에 손을 대기 시작한 이유도 생활고 때문이었다. 1961년 코미디 영화 <일 페데

랄레>로 영화 음악을 시작했으나, 당시에 그는 가명을 사용해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 이후 학교 동급생이었던 세르조 레오네 Sergio Leone 감독과 함께 작업한 영화 <황야의 무법자>에도 그의 이름은 가명인 ‘레오 니콜라스’로 기재된다. 하지만 영화의 엄청난 성공은 그를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영원한 감동으로 남은 500여 편의 음악**

엔니오 모리코네는 영화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읽고 해석해야 할 또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해 냈다. <황야의 무법자> 이후 세르조 레오네 감독은 엔니오 모리코네에게 음악을 먼저 작곡해 달라고 부탁했고, 배우들에게 그의 음악 분위기와 리듬에 따라 연기하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엔니오 모리코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후 엔니오 모리코네는 팝과 오케스트라를 혼합해 과감하고 실험적인 곡을 선보이거나, 오케스트레이션과 화성, 정교한 대위법과 섬세한 멜로디를 조화롭게 구현하기도 하며 <미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롤리타>와 <킬빌> 등 500편 가까운 영화 음악을 남겼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에 이른 2007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평생공로상을 수상, 영원한 영화 음악의 거장으로 남았다.

현대는 발명의 시대가 아니라 혁신의 시대다. 기존의 것에 새로운 것을 융합해 완전히 다른 것을 창조해야 한다. 엔니오 모리코네는 정통 클래식 음악에 새로운 작법과 악기를 더해 영화 음악의 흐름을 바꾸어 버렸다. 영화 음악을 ‘주체’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영화를 종합 예술의 장르로서 향유한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의 서정적인 선율은 언제 들어도 똑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오래된 영화처럼 우리의 마음을 오래, 따뜻하게 채워 줄 것이다.

백규선 대표 오페라와 예술이 선사하는 감동을 나누기 위해 ㈜아트에마니어를 설립, 쉽고 유익한 음악 이야기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작곡 기술이 하나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늘 음악 속에 일반적이지 않은 소리를 넣고 싶었어요.”



## 손글씨, 그 다정다감한 소통

### 캘리그래퍼 강병인

달콤한 꿀을 먹고 싶어 서예반에 들었던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되자마자 자신의 호를 '영목'이라 지었다. '영원히 먹고 함께 살겠다'는 비장한 마음보다는 그저 글씨가 좋아 붙인 이름이었다. 이름 그대로 손에서 붓을 놓지 않고, 평소 좋아하던 순우리말에 진심을 담고자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캘리그래퍼라 불리게 되었다며 활짝 웃는 사람. 꽃을 꽃답게, 봄을 봄답게, 바람을 바람답게 쓰며 세상 곳곳 다정다감한 소통을 만드는 강병인과 아주큐엠에스 이선미 책임이 마주 앉아 길고, 따뜻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글 유재원 사진 장호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촌 작업실이 벌써 네 번째 작업실이지요? 지난 작업실은 한글의 구성 원리인 천지인을 중심으로 공간을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한글과 관련된 의미가 숨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촌으로 작업실을 옮긴 이유는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신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한글이 만들어진 공간이기도 한데 세종의 삶, 철학, 한글에 대해 제대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수리해 이사 오면서, '세종의 한글 정신을 잇는 이들이 꿈꾸는 터'라는 설명을 붙이고, 한글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행동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글은 저라는 사람의 바탕이자 제 삶의 철학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한글적'으로 사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매일 붓을 잡으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먹이나 서예는 여전히 낯설고 멀기만 한데요, 어쩌다가 서예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셨나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서예반을 만드시고 평소 그림을 좋아하던 저에게 가입을 권유하셨어요. 저는 사실 서예가 어렵고 고리타분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당시 직접 양봉을 하시던 선생님께서 글씨를 잘 쓰면 꿀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꿀을 먹기 위해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먹을 가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약속대로 늘 꿀을 주셨고, 달콤한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서예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죠.

봄은  
봄처럼

꽃은  
꽃처럼

바람은  
바람처럼 씩니다.



**막연했다고 하기엔 선생님께서 어릴 적 지으신 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호로 '영원히 먹고 함께 살겠다'는 의미의 '영목'을 사용하시죠?**

중학교에 진학하며 추사 김정희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예의 길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확실히 정했죠. 하지만 그때도 잘 쓰지는 못했어요. 다만 친구들이 매일 무언가를 써 달라고 했는데, 서예는 낙관을 찍어야 글씨가 생명력을 얻으니까 호를 짓게 되었죠. 거창한 의미는 없었고, 그저 글씨 쓰는 일이 좋아서 짓게 된 호예요. 영목, 두 글자를 고무 지우개에 새겨 직접 쓴 글씨 아래 찍어 주곤 했어요. 그렇게 글씨 쓰기를 좋아했기에 붓을 놓지 않았고, 고등학교 때도, 군대에 가서도 늘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쓰시다가, 한글 캘리그래피의 물꼬를 트셨죠.**

디자인 일을 하면서 한글 서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인사동의 서예전에 자주 다녔는데, 전통 기법으로 잘 쓴 글씨는 아주 많았지만 그것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은 어디일까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전통 서예의 법고창신이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신을 하기 위해 평소 제가 좋아하던 고운 순우리말이 지닌 형상과 느낌을 살려 써 보기 시작했어요. 직접 써 보니 봄은 봄처럼, 꽃은 꽃처럼, 바람은 바람처럼 써지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을 '표음문자'라 해서 너무 소리에 가뭄 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글에서 표의성을 발견하고 그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일에 푹 빠져 지냅니다. 한글은 알면 알수록 더 아름다운 글자예요.

**그래서일까요? 선생님의 글씨는 모두 살아서 춤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한글이 아름다운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물이나 공기와 같이, 늘 친근하게 사용하는 문자라는 이유만으로 하찮게 생각해 왔습니다. 한자 서예만 정통으로 여기고, 영문 디자인만 멋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글에 깃든 철학은 한글을 가장 훌륭한 문자로 완성합니다. 자연과 사람의 조화,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실용의 정신, 다른 민족의 것과 다르다는 독창성. 한글의 숨은 뜻과 심미성을 알아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한글의 깊은 철학과 아름다움을 글자에 담아 내고 말겠다는 욕심이요. 우리말이 이렇게 곱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은 저의 기쁨입니다.

**한글 사랑이 굉장하십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봄과 꽃이에요. ㅁ은 땅, ㅊ는 싹, ㅂ은 움트는 씨눈같이 생겼죠. 꽃도 마찬가지로. ㅊ은 뿌리, ㅊ는 가지, ㅊ은 꽃과 같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잎을 닮았어요. 사실 한자나 영어는 우리 삶, 생활과 잘 맞지 않아요. 순우리말은 친근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기쁘고 슬픈 우리의 감정을 품고 있죠. 우리 마음을 간질이고 울릴 수 있는 건 결국 한글뿐이에요.

선생님의  
글씨는

모두  
살아서

춤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한글 사랑의 마음을 실천으로 이어 가고 계시죠. 책 제목에서부터 제품명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손글씨의 따뜻한 덕분일까요? 많은 작품이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적으로 애착이 큰 작품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게는 하나하나 모두 다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제품으로 나오면 글자는 딱 하나만 보여지지만 그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저는 무수히 많은 글자를 씁니다. 과정에서 고민할 것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제품 이름의 뜻과 소리, 누가 먹는지, 어떻게 팔 것인지를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물론 기업 담당자도 잘 설득해야 하죠. 그렇다고 소비자와 담당자만 만족시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인 제 만족도 중요하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끝기란 쉽지 않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짓궂게도 딱 한 가지만 꼽아 달라고 조르고 싶어지는데요, 선생님.(웃음)

하하. 제가 딱 10년 전에 「아주좋은날」의 제호를 썼습니다. 그때 참 좋은 제호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좋은, 날. 곱고 아름다워요. 특히 제가 가장 공들여 쓴 것은 '날'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가볍고 날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50호를 이어 온 것도 참 대단하시고,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들자면, <미생>을 끝고 싶어요.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스토리를 접하고 참 내 얘기 같으며,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너무 잘 써도 안 되고, 너무 못 써도 안 되는 이름이잖아요. 결국 참 오래 걸려 완성했는데, 다행히 글씨에서조차 미생의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소중한 작업이었지요.

글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소통의 일환으로, 캘리그래피 교육에도 힘쓰고 계시죠?

꽤 오랫동안 문화·예술명예교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의 정신을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생각과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찾았듯,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일이지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태안반도 쪽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어떤 아이가 쓴 '꽃게' 글자를 보고 감탄한 기억이 납니다. 늘 꽃게와 함께 생활하는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그 글자를 표현하더군요. 그때 그 아이를 통해 글자는 '경험'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상을 쓰고 앉아 있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빈둥빈둥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빈둥빈둥을 써 보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써 내더라고요. 바로 칭찬을 해주었더니 그 다음부터 수업 시간마다 글씨를 써 와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글씨에는 진심이 담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따뜻한 감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배우는 자세로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는 노력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손글씨, 우리 한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면이 분명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기 쉽고, 쓰기 쉽고, 인지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손글씨는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기 감정이 솔직히 담기잖아요. 정성껏 쓴 글씨, 급하게 쓴 글씨, 간절하게 쓴 글씨, 대충 쓴 글씨. 삶이나 생활, 감정과 태도가 담기기 때문에 다정다감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죠. 한글이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고, 눈높이를 맞춰 주는 것 같아요. 세종이 누구나 배우기 쉽고 쓰기 쉽도록 만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자연스럽게 담기게 되는, 평등한 글자니까요.

「아주좋은날」의 2018년 신년호 테마는 '전통, 그 가치에 오늘의 혁신을 더하다'입니다. 전통 서예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손글씨를 지어 내시는 선생님의 작업과 잘 어울리는 키워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평소 캘리그래퍼로서 전통과 현대성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다시 법고창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야는 바탕이 중요해요. 바탕 공부는 누구나 해야 하고요. 바탕을 기본으로, 재현이나 답습이 아닌 시대에 맞춘 재해석을 해야 해요. 시대에 맞추어 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을 어떻게 '잘 깨뜨리냐'의 문제인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일단 깨뜨려 보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흐르면 그게 또 다른 전통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 중심에는 작가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지키면서도 또 전통을 깨고 나와 대중과 호흡하는 사람. 결국 새 가치를 완성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벽을 만들지 말고, 창신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고통스럽더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 없는 예술가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저희가 삶에 임할 때에도 명심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되, 관성적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 '잘 깨뜨려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중요하겠지요?

네, 맞아요. 2018년 새해를 맞아 우리 자신을 잘 지키되 낡은 것들을 잘 깨뜨려 나가신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괴로워하기보다는 즐거움으로 맞이하시길 바라요. 「아주좋은날」을 보시는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2018년 한 해가 웃음꽃 만발한 아주 좋은 날들이시기를 바랍니다.



curation 1  
새해의 물건



### 획기적인 발명품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명종

시간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와 물 등 자연물을 활용해 자격루, 앙부일구 등을 발명했고, 영국인들은 노커-업Knocker-up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긴 막대를 들고 다니며 창문을 두드려 사람들을 깨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시계의 발명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특히 자명종은 모두의 고민인 아침잠을 깨워 주는 획기적 발명품이었다. 1789년 미국의 레비 허친스Levi Hutchins가 개발한 첫 자명종은 시간 조절이 되지 않아 늘 새벽 4시에 울렸지만, 1847년 프랑스에서 시간 설정이 가능한 자명종이 개발된다. 오늘날 휴대폰에 자리를 내어 주었지만, 양증맞은 자명종은 여전히 사랑받는 인테리어 소품이다.

일상, 더 천천히

# Now & Moment

“걷기는 자신의 길을 되찾아 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잃는 법이다.”

다비드 르 브르통

다이어트, 금연, 영어 공부. 2018년에는 매년 반복해 온 새해 결심은 잠시 덮어 두고, 일단 시작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요? 집 밖으로 나가,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디면 생각지도 못한 사이 근사한 산책을 즐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작은 시작은 항상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결과를 선물해 주니까요. 작은 카페와 맥주 가게, 소규모 마켓을 좋아해서 자주 이용하던 사람들의 도시는 어느새 누구나 한 번쯤 살아 보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도시가 되었고, 작은 차이를 만들고자 했던 디자이너는 이제 누구나 동경하는 한복을 짓습니다. 시작이 두렵다면, 행복한 생각을 노트에 적어 보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이 사는

# 유별나게 아름다운 도시,      포틀랜드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에 위치한 포틀랜드는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다. 맥주 바가 아닌 맥주 브루어리, 글로벌 체인 브랜드가 아닌 로컬 브랜드 숨이 가득한 거리, '포틀랜드를 이상하게 유지하라Keep Portland Weird'는 슬로건을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좋은 삶'의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이곳, 포틀랜드에서라면 환영받을 수 있다.

글 조소영(프리랜서 에디터)    사진 조소영, Travel Portland



일하러 오는 도시가 아닌 살러 오는 도시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매일 버스 두 대를 가득 채울 정도의 사람들이 포틀랜드(오리건주)로 이사하고 있다고 한다. “왜 포틀랜드인가?” 다양한 직종의 포틀랜더를 만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시”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포틀랜드는 자연과 가까운 도시다.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은 비치가 30분 거리에 있고,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포틀랜더들은 여름이면 공원에서 선탠과 피크닉을 즐기고, 겨울이면 썰매를 탄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캠핑카와 카약, 보트, 자전거를 실은 자동차가 도로에 가득하다. 너도나도 더 깊은 자연 속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자신만의 속도와 기준을 가진 포틀랜드,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

“포틀랜드는 이 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누군가는 파티시에를 꿈꾸며 빵을 구웠고, 누군가는 바리스타를 꿈꾸며 커피를 공부했죠.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의 도전, 로컬과 비주류를 응원하는 문화가 더해져 오늘날의 특수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포틀랜드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칼럼니스트 캐런 브룩스 Karen Brooks의 설명이다. 포틀랜드에는 유난히 다 싶을 정도로 많은 로컬 브랜드가 있다. 거리에는 맥주 브루어리와 커피 로스터가, 마트에는 지역에서 만든 향수, 비누, 유기농 식자재가 넘쳐난다.

“포틀랜드는 일하러 오는 도시가 아니라 살러 오는 도시예요. 포틀랜더들은 이곳에 살면서 천천히 직업을 구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작은 사업으로 구상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다양한 일을 시작하니 어느 도시보다 창의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요.”

포틀랜드에 위치한 에이스 호텔 부사장 라이언 벅스타인 Ryan Bukstein의 의견도 캐런과 다르지 않았다. 로컬 문화를 지지하는 문화는 지역 제품의 소비로 이어졌고 소규모로 시작한 많은 브랜드가 포틀랜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다.



- 1 |
- 2 |
- 3 | 4

- 1 살고 싶은 도시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에 자리한 포틀랜드는 풍요로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중소 도시다
- 2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자연을 사랑하는 포틀랜더들은 주말이면 깊은 자연 속으로 떠나 카약, 보트, 자전거를 즐긴다
- 3 모두의 개성이 존중 받는 도시  
포틀랜더들은 타투, 수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성을 발휘하며 창의적 문화를 만들어 간다
- 4 지역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포틀랜드 에이스 호텔은 지역이 가진 문화적 코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간으로 유명하다

“포틀랜드를 이상하게 유지하라!”

포틀랜드의 슬로건은 ‘포틀랜드를 이상하게 유지하라 Keep Portland Weird’다.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과 같은 보통의 도시 슬로건과 비교했을 때 이 얼마나 놀라운 문구인가!) 그리고 이 슬로건을 지키기 위한 포틀랜더들의 노력은 가상할 정도다.

먼저 다 같이 손을 잡고 타투 스킨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팔다리가 타투 투성이다. 음식을 만드는 셰프도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도 어김없이 팔뚝의 화려한 그림을 자랑한다. 분홍색 또는 파란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하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바짝 자른 대신 턱에 긴 수염을 달고 다닌다. 스타일도 이상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껌 좀 씹을 것 같은 외모와 달리 과학계 친절하다는 사실이다. 앞서간 사람이 문을 열어 주고 잡아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기만 해도 모든 차가 멈추어 선다. 보풀이 일어난 코트를 입고 나가면 “코트 정말 멋지다!”, 1년 동안 미용실에 가지 않은 머리로 거리를 돌아다니면 “너의 헤어 스타일 맘에 들어!” 등의 칭찬을 수없이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건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포틀랜더들은 자신의 개성만큼 다른 사람의 개성 또한 존중한다. 패션은 물론 하는 일, 생각하는 방식까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새롭고 창의적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의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이 작은 도시에 맥주 바가 아닌 맥주 브루어리가, 커피숍이 아닌 커피 로스터가, 글로벌 체인 브랜드가 아닌 로컬 브랜드 숍이 넘쳐나는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 지속 가능한 신뢰의 구조, 파머스마켓

지난해 포틀랜드의 푸드 신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많은 세프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저렴하고 신선한 포틀랜드의 식재료를 칭찬했다. 높이 차이가 심한 분지 지형이라서 큰 농장이 아닌 가족 경영의 소규모 농장이 발달하게 되었고 풍부한 비, 질 좋은 토양,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후는 많은 종류의 채소와 과일, 작물을 재배하기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 탁월한 환경을 발판으로 푸드 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는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포틀랜더들의 역할이 컸다. 지역의 문화와 브랜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지역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소비했고, 그 소비는 작은 지역 브랜드의 성장, 나아가 포틀랜드의 성장을 도왔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

인 방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포틀랜드 농부들의 건강한 철학과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오픈할 수 있는 환경에 이끌린 젊고 능력 있는 세프들이 포틀랜드에 모여드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포틀랜드뿐 아니라 오리건외 도시 곳곳에서 파머스마켓이 열린다. 특히 매주 토요일 다운타운 한가운데 위치한 PSU(Portland State University)에서 열리는 파머스마켓이 유명인데, 판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포틀랜드 파머스마켓의 디렉터인 트루디 톨리버 Trudy Toliver는 그 까다로운 조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식자재는 포틀랜드에서 300마일 이내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농부는 그들의 농장에서 직접 기르고 재배한 작물만을 가져올 수 있고, 목축업자는 직접 키운 가축으로 만든 식료품을 가져와야 합니다. 만약 핫소스를 판다면 적어도 주원료의 25%가 로컬 원료여야 해요. 많은 벤더가 파머스마켓을 시작으로 그들의 사업을 키워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뉴시즌, 홀푸드 등 마트나 레스토랑으로 재료를 공급하는 식이죠. 파머스마켓과 생산자들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노력의 결과, 유명 레스토랑의 세프부터 가족의 음식을 책임지는 주부들까지, 모두가 파머스마켓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게 되었다. 긴 시간 한자리를 지켜 온 농부와 그들을 알아보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소비자 간에 돈독한 신뢰가 쌓인 것이다.

### 포틀랜드에서만 먹고, 경험할 수 있는 것

로컬에서 나고 자란 것을 존중하는 문화는 오직 농작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커피와 맥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처음 포틀랜드에 커피 바람을 일으킨 건 1999년 시작된 스템프타운 커피 로스터 Stumptown Coffee Roasters다. 스페셜 커피 브랜드의 대부, 미국 3대 커피 브랜드, 포틀랜드라는 도시의 이름보다 먼저 알려진 브랜드지만 아무리 잘나간단 한

1 | 3  
2 |

- 1 포틀랜드 커피의 주역, 스템프타운 커피 스템프타운을 비롯한 포틀랜드의 독립 로스터들은 다양하고 신선한 커피를 선보인다
- 2 다양하게 맛보는 즐거움, 맥주 브루어리 포틀랜드는 인구 대비 브루어리 숫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크래프트 비어의 천국이라 불린다
- 3 지역의 신선한 식재료, 파머스마켓 파머스마켓은 지역의 농부와 소비자가 건강한 식재료를 매개로 연결되는 지역 마켓이다



들 스템프타운 하나에 그쳤다면 오늘날 포틀랜드에 '커피의 도시'라는 명성을 가져다주지는 못했을 거다. 포틀랜드에는 코아바 커피 로스터 Coava Coffee Roasters, 하트 커피 로스터 Heart Coffee Roasters 등 수많은 커피 로스터가 있다. 커피 매거진 「프레시 컵 Fresh Cup」, 「바리스타 매거진 Barista Magazine」, 커피 기어 인벤터인 에이블 브루잉 Able Brewing이 모두 포틀랜드에서 탄생한 것들이다.

시애틀에서 시작된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수만 개 매장을 오픈할 때, 포틀랜드의 독립적인 커피 로스터와 카페는 지역 안에서 그들만의 커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켰다. 포틀랜더는 자신이 마시는 커피가 포틀랜드의 뒷마당에서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이기를 원했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 탄생한 커피 로스터들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각각의 커피를 한번에 하나씩 소고스럽게 만들어야 하는 '느리게 커피 마시기'의 방법인 '푸어 오버'를 고수하고 전 세계를 돌며 사 온 원두를 로스팅, 블렌딩하는 커피 로스터의 노력에 걸맞게 다소

비싼 커피 가격도 합당하다고 여기며 기꺼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하기 위한 긴 줄에 합류했다. 이러한 논리는 맥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포틀랜드로 맥주 투어를 오는 여행객이 늘면서 '맥주 투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구글에 'Portland Brewery Tours'를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가 쏟아진다. 한 해에 2만 6,000배럴의 맥주를 생산하는 럭키 래브라도 브루잉 Lucky Labrador Brewing의 오너 게리 기스트 Gary Geist는 이렇게 말했다.

“포틀랜더는 포틀랜드의 맥주가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들은 새로운 맥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무엇보다 어떤 맥주가 좋은 맥주인지 구별할 줄 아는 훌륭한 미각을 가지고 있죠.”

지리적 요인도 한몫을 했다. 오레곤의 홉 재배율은 미국 내에서 17%, 전 세계적으로는 5%를 차지하는데, 오레곤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다. 후드산에서 흘러내리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 보리가 잘 자랄 수 있는 기후와 평원, 수많은 홉 농장, 거기에 정부의 지원과 맥주 애호가들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포틀랜드 태생의 로컬 브랜드들은 간혹 서부의 몇 개 도시에 지점을 들이언정, 미국 전역이나 다른 나라로 사업을 확장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브랜드의 제품이 로컬에서 나고 자란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에 있다. 브랜드가 확장되면 그 재료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포틀랜드에서만 먹고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를 지켜 가려는 노력은 그들을 지지해 준 포틀랜더들에 대한 의리이기도 하다.

조금은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포틀랜드를 설명하기 위해 에이스 호텔, 스템프타운 커피, 나이키와 키포크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선정되었다는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다. 포틀랜드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지금도 이 도시를 이상하게 유지하는 무언가에 대해, 그러한 이유가 이 도시가 갖게 된 특별한 아름다움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 가고 있다. 확실한 건 포틀랜드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 흔들리는 갈대, 걷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다

인류는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고, 시야가 넓어졌으며, 뇌가 발달했다. 보고 듣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생각하는 힘도 커졌다. 인간은 걸으면서 생각한다. 파스칼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불과하지만, 걷기는 인간을 세상과 우주에 대해 사유하는 위대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행위다.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취미 '걷기'의 의미 속을 거닐어 보자.

글 정수복(사회학자, 작가) | 일러스트 민지홍

## 마음이 순해지는 제주도 걷기

1974년 여름, 제주도를 처음 걸었다. 그 후 제주도는 나에게 휴식과 사색의 섬이 되었다. 한반도 남쪽 바다에 떠 있는 제주도, 그 안에서도 서귀포는 햇살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나는 지금 그 서귀포의 먼 바다를 바라보며 걷고 있다. 태평양과 이어지는 남쪽 바다에는 섯섬, 문섬, 새섬, 범섬 등이 이루는 풍경이 펼쳐진다. 잔잔한 파도는 햇빛에 반사되어 물고기의 비늘처럼 반짝인다.

제주에는 길이 많다. 자동차를 위한 평화로, 번영로, 5.16도로, 일주도로 등이 동서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주를 걸어서 한 바퀴 도는 제주 올레길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정해진 코스를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코스를 따라 걷다가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길모퉁이가 나오면 그곳으로 가 보기 위해 코스를 벗어나 버린다. 정해진 길을 벗어나 마음 가는 대로 걸어야 긴장감이 있고 예상 밖의 장소를 만날 수 있다.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동네는 그런 산책을 하기에 이상적인 공간이다.

이곳은 올레 7길이 끝나고 8길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한 반달 모양의 작은 마을이다. 겨울이지만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나는 오전에 글을 쓰다가 점심 무렵 동네를 한 바퀴 돈다. 매일 걷다 보니 낯설었던 동네길이 점차 친근하게 다가온다. 나지막하게 돌담을 쌓은 크고 작은 집에는 대문이 없다. 바둑판같이 구획된 예측 가능한 길이 아니라 활이나 말발굽처럼 휘어진 동네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이 나온다. 막다른 골목길도 많다. 등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작은 동리를 걷다 보면 마음이 순해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뭉게구름처럼 피어난다.

## 발길 가는 대로 떠나는 산책

앞서 말했듯 나의 산책에는 순서도 방법도 없다. 그저 자연스럽게 발길 가는 대로 걷는 것에 더 가깝다. 걸으며 마주하는 풍경에 마음을 열고, 소리를 듣는다. 길이나 건물의 역사를 더듬어 보기도 하고, 운 좋게 예술 작품을 만나기라도 하면 그저 또 그대로 잠시 감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걸은, 제주도 산책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서귀포시 중앙로터리에서 바다를 향해 걸어 내려가다 매일올레시장을 지나면 이중섭 미술관이 나온다. 이중섭은 1951년 이곳에 살며 자구리 해안을 즐겨 산책했다고 한다. 아이들과 계가 어울려 놀고 있는 은지화를 보고 옥상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본 다음 '작가의 산책길'로 들어선다. 잠시 후 외계에서 불시착한 비행 물체를 닮은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 나타난다. 그 위 언덕에는 삼매봉도서관과 기당미술관이 나란히 붙어 있다. 기당미술관에는 폭풍의 화가 번시지의 황토빛 제주 풍경화가 전시되어 있다. 그림 속에는 태풍이 몰아치는 바닷가 절벽 앞에 작은 초가집, 소나무 한 그루, 조랑말이 있고 그 곁에 외로운 남자가 서 있다.

언덕을 걸어 내려와 칠십리길로 들어선다. 서귀포항을 지나고 서북기념관과 정방폭포를 지나면 왈종미술관이 나타난다. 미술관 정원에는 제주의 마을 형태로 조성된 텃밭이 있다. 검은 제주 돌로 구획을 정리해 놓은 텃밭 길에는 큰 생선을 꺼안은 돌하르방을 비롯해 군데군데 오방색을 변형시킨 색상을 칠한 소규모 조형물이 배치되어 있다. 미술관 안에는 나무, 꽃, 새, 물고기, 나비, 초가집, TV, 전화, 골프장의 모습이 그림, 동영상, 조형물 속에서 환상적으로 날아다닌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뒤로는 웅장한 한라산이, 앞쪽으로는 서귀포 앞바다가 펼쳐진다.

그곳을 나와 데크로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내려가면 파라다이스 호텔 옆에 자리

## + 걷기 전에 읽는 책



『파리를 생각한다』 정수복  
걸으며 사유하는 인문학자 정수복이 14년 동안 파리에 머물며 기록한 산책기. 걷기를 통해 끊임없이 확장되는 사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음은 물론, 길에서 탄생한 문장들이 첫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선물한다.



『걷기의 인문학』 레베카 슬니트  
'걷기'라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행위에 담긴 철학적이고 창조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탐구하는 책. 그 자체로 수단이자 목표인 걷기와 인문학의 공통점을 사유하며 인간의 역사가 결국 걷기, 즉 진보의 역사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 도착하려네』 나희덕  
매일같이 천천히 걷기를 즐기는 산책자이자 시인인 나희덕의 산문집. 산책길에서 마주한 풍경과 사람, 사물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사진과 글로 엮었다. 나만의 산책길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섬세한 감각을 전해준다.

+ 걸으며 듣는 음악



<카니발(사육제)> 슈만
로베르트 슈만의 사육제는 '4개의 음표로 된 작은 풍경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피아노 독주곡이다. 이 작품은 사순절 전에 행해지는 축제인 사육제를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을 표현한 일종의 음악적 가면무도회로, 모두 22개의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9번 산책은 편안한 리듬으로 상쾌한 기분을 선사하므로 아침 산책에 잘 어울린다.



<빗방울 전주곡> 쇼팽
걷기는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차분하게 정리해 준다. 특히 비 오는 날, 촉 처지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우산을 쓰고 잠깐 걸으면, 기분이 전환됨은 물론 색다른 낭만까지 누릴 수 있다. 쇼팽이 낡은 집에서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작곡했다는 <빗방울 전주곡>과 함께 우중 산책을 즐기며 메마른 감성을 충전해 보자.



<전원교향곡> 베토벤
베토벤은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산책을 통한 자연과의 대화를 즐겼다고 한다. 그가 여름마다 거닐며 악상을 떠올렸다는 빈의 하일리겐슈타트 숲에는 베토벤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을 정도. 그가 산책을 통해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과 기쁨이 녹아 들어 있는 <전원교향곡>은 우리의 산책길에도 좋은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잡은 <소라의 성>이 나타난다. 건축가 김중업의 1969년 작품이다. 최근 서귀포시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해 모든 사람을 위한 북카페로 거듭났다. 1층에는 독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마치 소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음악회나 그럴듯한 전시회를 열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나온다. 그곳을 나와 바닷가로 걸어 내려가면 폭포수 소리가 진동한다. 소정방폭포다. 여름이면 서귀포 사람들이 '물맛이'를 하고 난 다음 햇빛으로 따뜻해진 바위에 누워 몸을 녹이던 장소다.

걷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다

인간은 두 발로 걷는 직립 영장류 동물이며 파스칼의 말과 같이 '생각하는 갈대'이기도 하다. 인류는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고, 시야가 넓어졌으며, 뇌가 발달했다. 보고 듣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생각하는 힘도 커졌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누워만 있다가 네 발로 기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일어나 걸으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살아 있는 사람은 매일 걷는다. 걷는 일은 살아 있음의 증거다. 늙어서 기력이 쇠하면 걷는 일을 중단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자리에 눕는다. 그게 인생이다. 걸음을 멈출 때 온전한 삶도 정지한다. 인간은 걸으면서 생각한다.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불과하지만 걷기는 인간을 세상과 우주를 소유하는 위대한 존재로 변화시킨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가? 노상 걷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걷고 있지는 않은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자동차 운전대 앞에 앉아 직장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놓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오면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생각도 정해진 회로를 빙빙 돌 뿐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정해진 틀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주말이나 연휴를 맞이하면 낯선 곳으로 가자. 그리고 미지의 길을 걸자. 그러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데카르트는 파리를 떠나 암스테르담에서 『방법서설』을 썼고, 마르크스는 베를린을 떠나 런던에서 『자본론』을 썼다. 작가나 사상가나 예술가만이 아니다. 누구라도 늘 푸른 소나무처럼 시들지 않는 삶을 살려면 틀에 박힌 일상의 공간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걸어야 한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닫힌 공간을 박차고 나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야 한다. 뒤 돌아보지 말고 걸어야 한다. 답답한 마음이 풀릴 때까지 걸어야 한다. 그렇게 걷다 보면 작아졌던 내 모습이 다시 제 모습을 찾게 된다. 새로운 삶의 용기가 솟아오르고 밝은 미래가 그려진다. 걷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걷기 실천법

Level 1. 틈틈이 걷기

걷기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평소 움직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틈틈이 걷는 습관을 들여 보자.

1 만보기 걷기

스마트폰의 만보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매일 걷는 양을 체크한다. 매일 조금씩 숫자를 늘려 나간다는 느낌으로 사무실, 집에서 틈틈이 움직여 보자.

2 계단 걷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자. 바깥에 나가기 어려운 비 오는 날에는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15분만 걸어도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3 한 정거장 걷기

퇴근길에 지하철, 버스를 이용한다면 도착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걸어 보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걸으면 20~30분이 금방 흐를 것이다.



Level 2. 색다르게 걷기

걷기 운동을 하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중도 포기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에 지지 않기 위한 색다른 걷기 방법을 소개한다.

1 슈퍼마켓, 마트 걷기

길이나 공원 걷기가 단조롭다면 슈퍼마켓, 마트 걷기에 도전해 보자. 가벼운 차림으로 걸어가 장을 본 후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질 것이다.

2 서점, 미술관 걷기

주말에는 서점이나 미술관 걷기에 도전해 보자. 가벼운 브런치를 먹고 서점이나 미술관을 구경한 후 주변을 산책하면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3 등산로 걷기

경사진 길을 걸으면 운동 효과를 두 배로 볼 수 있다. 틈틈이 실행한 걷기 운동으로 체력이 조금 상승했다면 가까운 산의 등산로를 원주해 보자.



Level 3. 본격적으로 걷기

틈틈이, 색다르게 걸으며 운동에 재미를 붙였다면 본격적인 걷기 운동에 돌입해 보자. 가장 중요한 점은 일주일에 세 번, 30분씩 걷는 것이다.

1 출퇴근 걷기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려면 일주일에 세 번, 걸어서 출퇴근을 해보자. 출근 걷기는 상쾌한 아침을, 퇴근 걷기는 뿌듯한 저녁을 선물할 것이다.

2 약간 빠르게 걷기

걷기에 약간 익숙해졌다면 주말을 활용해 공원으로 나가자. 좀 더 운동 기분을 내고 싶다면 3분씩, 걷기와 달리기를 반복하며 30분을 채워 보자.

3 걷기 여행 떠나기

꾸준한 실천을 통해 걷기에 자신감이 붙었다면 걷기 여행을 떠나 보자. 한국관광공사의 '두루누비(www.drunubi.kr)'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도 좋다.

유량을  
꿈꾸는 그녀,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의

餘 暇 食 美  
여 가 식 미



찬 바람 불던 새해의 어느 날,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을 만나기 위해 한남동을 찾았다. 감기에 걸렸다고 하니,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내어 주었고 기침을 하면서도 한결같이 유쾌한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그녀도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어느새 기침이 많이 잦아들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는데 그녀는 또 어딘가로 바쁘게 향했다. 연극 무대에서 패션 업계로, 해외 무대를 거쳐 한복 디자이너로 정착한 김영진이 또 어딘가로, 새로운 유량을 떠나려는 것 같았다.

글 김희란 사진 장호

그녀의 이야기는 연극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극을 시작했다. 공연예술아카데미에서 만난 선생님과 사람들이 좋았고, 무엇보다 연극을 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이 무엇인지 알아 간다는 사실이 기뻐다. 우리의 언어로 진실되게 이야기할 때 극의 감동이 커진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때쯤, 특강에서 이윤택 감독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추구하는 우리 극, 한국적인 미학을 좇아 연희단거리패에 들어갔다.

“오랜 시간 연극배우로 지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때 무작정 패션 분야로 뛰어들게 되었죠. 옷에 관심은 있었지만, 브랜드에 대해서는 무지하던 시절이었어요. 일을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패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야 했고, 절실함으로 무엇이든 배웠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채워해 준 것에 감사하며 항상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이후 수입 명품 브랜드에서 10년간 슈퍼바이저로 일할 수 있었다. 해외 브랜드에서의 경험은 보다 넓은 세상에서, 그녀 자신과 우리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다. 건강 문제로 잠깐 쉬 무렵 한복을 접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취미로 가볍게 시작했다. 서울시무형문화재 박선영 선생님을 찾아가 바느질을 배웠고, 더듬더듬 주변 사람들에게 한복을 만들어 주기도 했는데 그 반응이 참 좋았다. 그렇게 한복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선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한복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며 한복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이 한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 초 한복들은 그 모양이 모두 달랐어요. 한복에 대해 알고 보면, 특이한 디자인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전통은 그렇게 숨겨져 있기에 잘 몰랐던 우리 복식의 매력이고, 그를 발굴하는 것이 저의 일이에요. 전통에 요즘의 소재, '차이 김영진'만의 감각을 접목해 한복을 이 시대의 옷으로 재해석해 내는 것이 바로 '차이킴'이죠.”

김영진은 현재 두 개의 브랜드 '차이 김영진'과 '차이킴'을 운영하며 '차이'가 나는 한복, 입고 싶은 한복으로 손님들을 맞이한다. '차이 김영진'은 전통 한복에 기반을 둔 맞춤 한복, '차이킴'은 한복에 기반을 두되, 그녀가 하고 싶었던 디자인을 반영한 기성복 라인이다. 김영진은 차이킴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정진한다.

“저는 늘 모든 포커스를 한복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하든 한복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욕심을 내지 않아요. 앞으로도 오직 한복에만 욕심을 부리고 싶어요.”

남사당패가 자유롭게 세상을 유랑하며 예술을 전파하듯, 삶이 만들어 내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겁먹기보다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있는 힘껏 즐겨 온 김영진. 한복을 패션으로 이끌어 온 그녀의 자유로운 감각이 깃든 여가식미를 소개한다.



**餘** 예술을 통한 영감, 공연

저는 새로운 공연을 마주하며 영감을 받곤합니다. 특히 우리 극을 좋아하지요. 최근 본 공연은 연극 <산불>이었는데, 효과음을 절제하며 극을 전개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남극을 좋아하다 보니 무대 의상도 자주 작업하게 되는데 최근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작업한 <동백꽃 아가씨>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에 한국적 색채를 더한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이었어요. 프랑스 귀족 문화가 어떻게 조선의 양반 문화로 재해석되었는지 궁금하다면 꼭 만나 보시길 추천드려요.

**暇** 자유로운 감성, 유랑의 공간

차이킴의 브랜드 콘셉트는 '유랑'이에요. 제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영감을 받는 편이거든요. 또 제 마음 깊은 곳에 늘 남사당패에 대한 연민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남사당패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재주를 펼치는 예술가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매력을 차이킴에 접목해, 브랜드 론칭 초기에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전국 곳곳에 쇼룸을 운영하며 유랑했어요. 지금은 고정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호텔, 축제, 그리고 그 어디로든 유랑을 떠나고 싶어요.

▲ 김영진 디자이너는 공연 애호가다. 티켓은 물론이고, 의상 작업에 참여한 수많은 공연의 작업 스케치와 관련 홍보물을 파일에 차곡차곡 모아 두고 있었다.

▼ 유랑을 사랑하는 그녀의 감성이 곳곳에 밴 쇼룸. 전국의 오일장은 물론 다양한 여행지에서 가져온 아가자기한 소품으로 채워놓아 보는 재미가 가득했다.



**食** 이야기가 있는 술, 와인

명품 브랜드에서 일하다 보니 와인을 마실 기회가 많았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와인을 즐기게 시작한 건 와인에 담긴 스토리를 소개하는 책을 읽은 후예요. 무엇이든 알고 나면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이후 프랑스문화원에서 강좌를 듣기도 하고, 동호회에도 참석하며 와인의 매력을 알게 되었죠. 와인 동호회에서 인연이 생긴 한상인 선생님의 농장에서 차이킴 패션쇼를 연 적도 있었어요. 포도가 있는 농장의 마당에서 퍼포먼스를 가미한 패션쇼를 열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美** 아름다운 소비, 공예품

공예는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드는 것이고, 작가들의 기술과 노하우는 학습을 통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온 것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공예품을 보면 제값을 주고 구입하려고 노력해요. 공예인으로서는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의 작품이 끊이지 않고 널리널리 보급되길 바라거든요. 공예가분들 과도 종종 협업해 한국적 아름다움에 대한 건 강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 어려서부터 와인을 동경했다고 말하던 그녀. 몇 가지 추천해 달라고 하니 프랑스 론 지방의 부르그뉴 와인과 피노누아 와인을 꼽았다.

▼ 그녀의 쇼룸에는 달항아리, 자개장 등 장인의 손길이 묻어나는 공예품이 참 많았다. 한복과 어울리는 애장품을 몰았더니 고민 끝에 고운 노리개를 내어 주었다.





minique BREDOUEN



5 rue Colonel DRANF. 14<sup>e</sup>

6 rue JASMIN. 16<sup>e</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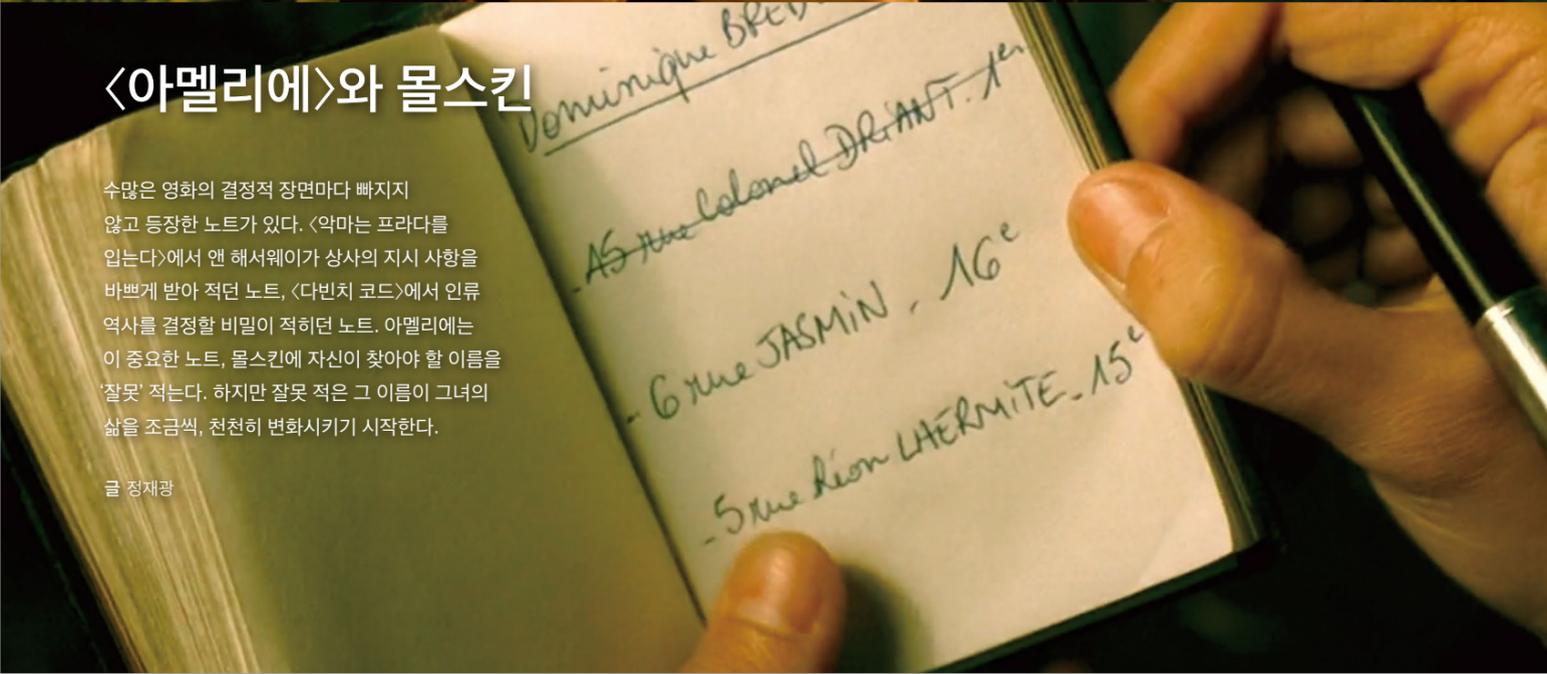
5 rue Lion LHERMITE. 15<sup>e</sup>

## 잘못 적은 이름, 행운을 선물하다

### <아멜리에>와 몰스킨

수많은 영화의 결정적 장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노트가 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앤 해서웨이가 상사의 지시 사항을 바쁘게 받아 적던 노트, <다빈치 코드>에서 인류 역사를 결정할 비밀이 적혀던 노트. 아멜리에에 이 중요한 노트, 몰스킨에 자신이 찾아야 할 이름을 '잘못' 적는다. 하지만 잘못 적은 그 이름이 그녀의 삶을 조금씩, 천천히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글 정재광



### 사랑스러운 외톨이, 아멜리에의 보물 상자

어린 아멜리에에 외로운 소녀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무뚝뚝한 성격 탓에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 때에만 그녀와 접촉했다. 아버지의 다정한 손길에 두근거려던 아멜리에에는 심장병을 의심받아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엄마는 노트르담 성당에서 뛰어내린 관광객과 부딪혀 세상을 떠났다. 유일한 친구였던 금붕어도 소동을 일으킨 탓에 시냇물로 퇴출당했다. 그럼에도 사랑스러운 숙녀로 성장한 아멜리에(오드레 토투)는 몽마르트르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많은 사람에게 행복의 기운을 전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사랑에는 소극적이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시작한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멜리에의 사랑 찾기는 우연히 발견한 보물 상자로부터 시작된다. 상자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은 아멜리에에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도미니크 브레도토'라는 이름을 몰스킨 노트에 적고 후보자를 한 명씩 찾아다닌다. 노트에 몇 번의 빗금이 새겨진 끝에 40년 전 상자의 주인이었던 '도미니크 브레도토'에게 상자를 배달한다. 아멜리에로부터 추억을 선물 받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그 모습에 평안을 느낀 아멜리에에는 주변 사람들의 행복 찾기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행복 전도사가 된 아멜리에에는 눈이 먼 노인을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일하던 동료와 손님을 연인으로 이어 주기도 하며 뿌듯한 나날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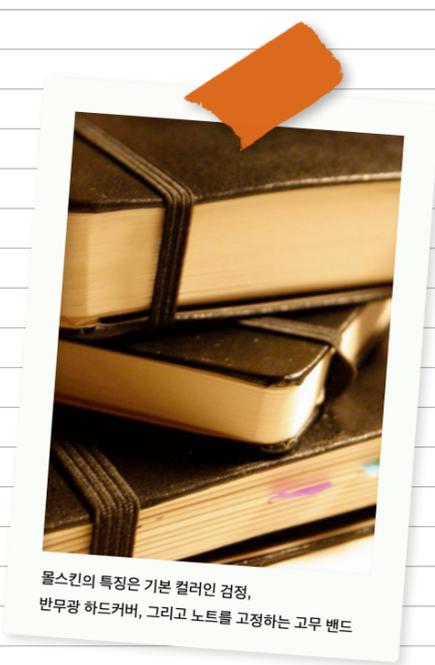
자신의 작은 실천으로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게 바뀌는 것을 목격한 아멜리에에는 드디어 용기를 내 그녀의 사랑 니노에게 다가간다. 틀린 이름이었지만 노트에 누군가의 이름을 적고 그를 찾아 나선 도전이 그녀의 삶에 용기를 더해 준 것이다.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몰스킨 노트가 그녀에게는 보물 상자였던 셈이다.

### 예술가의 노트이자 아직 쓰이지 않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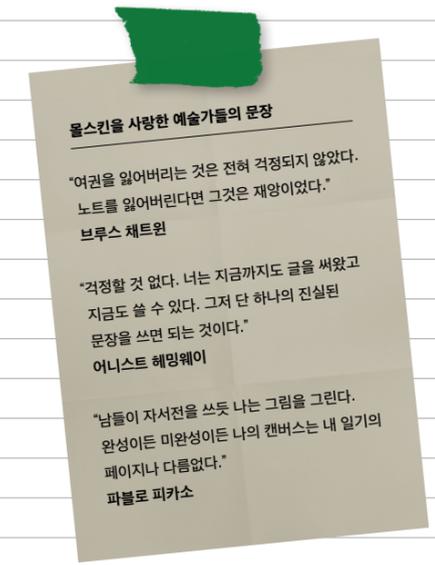
아멜리에 이전에도 몰스킨을 보물처럼 여기던 이는 많았다. 훌륭한 산문가였던 브루스 채트윈 Bruce Chatwin은 노트 안쪽에 노트를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찾아주는 이에게 사례를 하겠다는 메모를 적어 둘 정도로 자신의 노트를 소중하게 생각했다. 당시에는 브랜드 이름이 아닌 프랑스제 검은 유포지로 만든 노트의 한 스타일을 일컫는 말이었다. '몰스킨'은 피카소와 헤밍웨이가 사용했던 노트로도 유명하다.

이들의 예술적 영감을 이어받은 브랜드 몰스킨은 1995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밀라노의 디자이너 마리아 세브레곤디 Maria Sebregondi가 디자인 스튜디오 모도 앤 모도를 찾아가 몰스킨 스타일을 반영한 노트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들은 고무 밴드와 둥근 모서리, 뒤쪽의 주머니, 미색 종이와 검은 표지를 가진 노트를 되살려냈다. 노트 안쪽에 헤밍웨이와 모네, 고흐의 이름이 자리했고, 옆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책'이라는 슬로건이 붙었다. 어느새 몰스킨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노트가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브루스 채트윈과 헤밍웨이를 내세우지 않는다. 동시대의 유명 예술가와 혁신적 사업가들 또한 모두 몰스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몰스킨을 사용한다고 당장 크리에이티브 리더나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노트에 누군가의 이름을 적고 찾아 나선 아멜리에의 움직임이 혼자만의 세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어 준 것처럼, 아직 쓰이지 않은 당신의 탈렌트도 한 줄의 메모에서 시작될 것이다.



몰스킨의 특징은 기본 컬러인 검정, 반무광 하드커버, 그리고 노트를 고정하는 고무 밴드



curation 2  
새해의 물건



#### 손목 위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스마트 워치

이제 시계는 더 이상 시간만 알려 주는 도구가 아니다. 시계 자체만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거나 휴대폰과 연동해 게임, 알람, 전화 수신 및 발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몸에 밀착되어 있다는 특징을 활용해 심박 수, 혈당 수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기로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1994년 미국 시계 제조사인 타이멕스Timex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만든 데이터링크Timex Datalink는 PC로부터 데이터를 수신받아 사용자에게 보여 주던 최초의 스마트 워치로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이 애용했다고 한다. 이후 놀라운 속도로 고도화된 스마트 워치는 다양한 종류와 디자인으로 진화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다.

아주, 더 높이

# Aju & Style

“위대한 성취를 하려면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꿈꾸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나톨 프랑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하기 전에 상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뻑뻑한 하루 일과를 수행하느라, 눈앞에 닥친 일들을 치열하게 고민하느라 진정 내 마음이 향하는 곳, 꿈꾸는 일들의 모습을 그려 보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마음의 소리를 들어 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바다가 가까운 한적한 리조트에 머물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모습, 아담한 도서관에 앉아 서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 떠올리면 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뿌듯한 풍경을, 하나쯤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요. 2018년 새해, 아주가 상상하는 풍경들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 리조트에서 만나는 어느 멋진 날

오늘날 리조트는 단순한 숙박의 공간이 아니다. 잠을 자는 것 이상의 경험과 의미를 추구하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리조트 스테이의 개념이 점점 더 문화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과 추억 만들기가 필요한 손님들에게 인생에 단 한 번뿐인 하루, 가족들과 다 함께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는 리조트.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하얏트 리젠시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특별한 프로그램이 우리를 반긴다.

글 유재원 사진 하얏트 리젠시 제주



### #호캉스, 오늘날 호텔이 지니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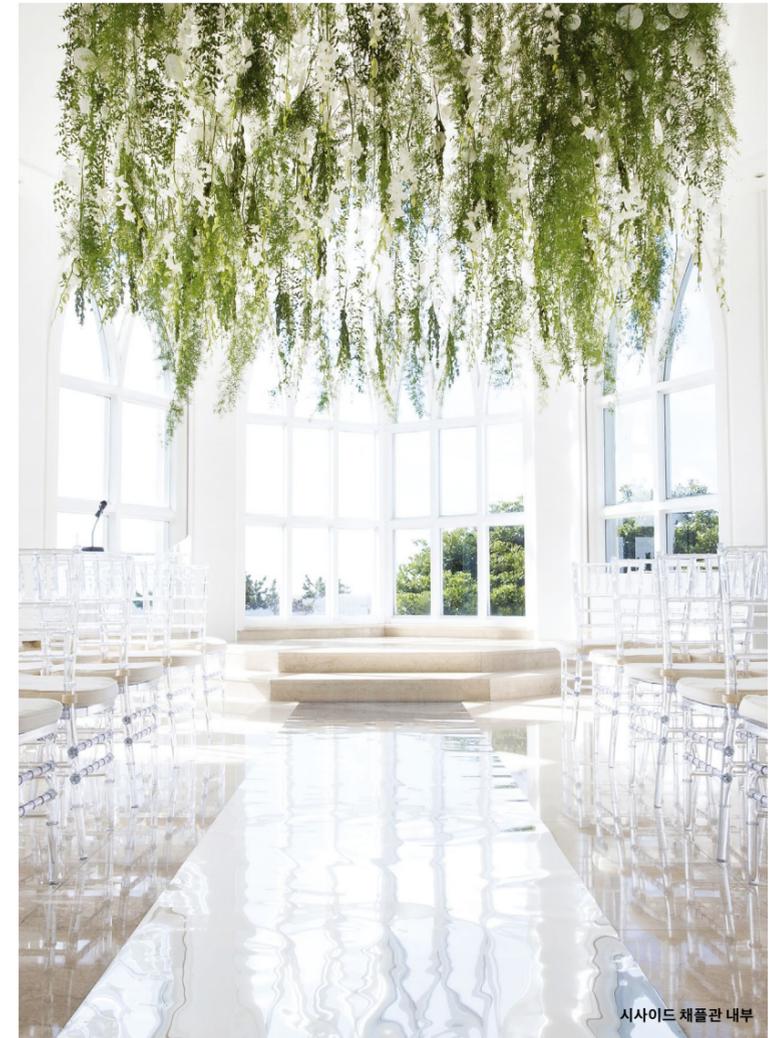
SNS 검색창에 '#호캉스'를 검색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호캉스를 떠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곧 다양한 사람들의 각양각색 호텔 향유법을 웃으며 구경하게 된다. 호텔 창으로 보이는 풍경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감성파, 조식부터 야식까지 호텔에서 즐기는 음식을 찍고 먹고 찍고 또 먹는 찍먹파,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파. 이처럼 자신만의 방법으로 추억을 만들고 기록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으면, 오늘날 호텔, 리조트라는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다.

호캉스는 호텔Hotel과 바캉스Vacance의 합성어로, 멀리 여행을 떠나는 대신 호텔이나 리조트에 머물며 즐기는 휴식을 일컫는다. 2017년 올로 라이프의 등장과 함께 고급스럽고 아늑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호캉스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이러한 동향은 우리 사회의 소비가 소유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래 물건을 소유하는 '목적지향적 소비'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점점 여행, 학습, 문화생활 등 경험을 수반하는 '경험지향적 소비'로 소비의 주안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험이 소유보다 '행복'에 더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값비싼 구두나 옷을 구매했을 때의 감정보다 여행의 만족감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흐름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자연스레 여행의 개념도 진화했다. 관광 중심의 여행은 낯선 곳에 머물며 문화를 경험한다는 개념으로 변화했고, 숙박 또한 단순히 잠을 자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객들은 다양한 시설과 문화적 요소를 갖춘 호텔과 리조트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경험과 추억을 디자인하고 있다.

### 리조트에서 올리는 아주 특별한 웨딩 마치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에 발맞춰, 호텔들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과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도서관, 갤러리와 연계한 프로그램, 뮤지컬이 포함된 객실 패키지, 마사지와 스파를 통해 힐



시사이드 채플관 내부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제주 바다의 전망을 느낄 수 있는 시사이드 채플을 추천드려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푸르른 제주의 자연 속에서 치러 보세요.”

— 하얏트 리젠시 제주 황유진 매니저

링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등. 많은 호텔이 시즌에 따라 내놓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호텔들이 내놓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매년 호텔을 방문하고 싶지만, 호텔 여행을 떠나는 것은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특별한 날에, 특별한 고

객을 위해,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은 만한 맞춤 프로그램을 정성껏 준비하는 리조트가 있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는 공간이 지닌 환경적 이점과 33년 전통의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웨딩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최근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결혼식을 '만들어 가는' 웨딩 트렌드와도 잘 맞아 많은 고객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오면 막상 부모들은 잘 못 쉬는 경우가 많은데, 캠프 하얏트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저희는 여유 있게 쉴 수 있어 좋았어요.”

— 하얏트 리젠시 제주 투숙 고객

통유리창을 통해 펼쳐지는 자연광과 바다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통 채플 예식인 시사이드 채플Seaside Chapel, 푸른 잔디와 맑은 하늘을 자랑하는 클리프 가든의 싱그러운 가든 웨딩, 한여름 중문 해변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비치 웨딩. 하얏트 리젠시 제주가 운영하는 세 가지 웨딩 프로그램은 조용하지만 특별한 나만의 결혼식을 원하는 젊은 신혼부부, 리마인드 웨딩을 계획하는 중년 부부는 물론 제주의 자연을 동경하는 외국인 부부들에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985년 3월 제주도 유일의 인터내셔널 호텔로 개관한 하얏트 리젠시 제주는 1980년대 신혼여행의 중심지로, 수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그래서일까, 하얏트 리젠시 제주의 웨딩 서비스는 남다른 역사와 노하우를 자랑한다. 특히 2017년 리뉴얼한 시사이드 채플은 2006년 국내 최초로 오픈한 채플관에서 진행되는 국내 유일의 정통 채플 웨딩

서비스로, 일생에서 단 한 번뿐인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사랑의 서약을 새하얀 보트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맺을 수 있다.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은 망설이지 말고 문의 및 상담을 진행해 보자. 만족스러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의 웨딩 프로그램이 갖춘 강점은 특별한 분위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고객의 취향에 맞춘 데커레이션, 전문 이벤트 팀의 매끄러운 서비스와 웨딩 규모 및 인원 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웨딩 패키지가 결혼식 준비를 수월하게 돕는다. 원한다면 웨딩 플래너의 전문 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며, 세프들이 제주의 신선한 재료로 선보이는 정성스러운 음식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가족 알찬 추억 만들기, 캠프 하얏트**  
호캉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외로 가족 단위가 많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은 이동에 제약이 있게 마련이라 멀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실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는 호텔 혹은 리조트 스테이를 선호한다. 여러 호텔과 리조트가 캠핑, 페스티벌, 어린이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패키지를 선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유익한 시간과 더불어 부모들의 여유로운 시간까지 한번에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에서 선보이는 캠프 하얏트 프로그램은 글로벌 브랜드 단위에서 진행하는 키즈 액티비티 프로그램이다. 캠프 하얏트는 만 6~12세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놀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전문 교육을 받은 컨시어지 교사들의 운영으로 안전하고, 유익하게 진행되며 아침, 점심, 오후 캠프로 나뉘어 있어 편한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 중 몇 가지를 골라 이용할 수 있다. 에코백 만들기, 비즈 공예, 닥종이 인형 만들기 등 실내 액티비티는 물론 스마 체험, 요트 투어, 환상 숲 체험 등 제주의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야외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즐거움이 고객을 반긴다.

가장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푸른 제주 바다를 누릴 수 있는 요트 투어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아이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행복한 신혼부부



특별한 요트투어

자체로 들뜨고, 직접 낚시를 경험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색다른 추억을 만들게 된다. 이외에도 시즌에 맞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연중 활기차게 운영되는 캠프 하얏트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제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특별한 여행 콘텐츠다.

“저희 아이가 닥종이로 만든 해녀 인형이 예요. 컨시어지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이랑 함께 여행 오면 막상 부모들은 잘 못 쉬는 경우가 많은데, 캠프 하얏트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저희는 여유 있게 쉴 수 있어 좋았어요. 프로그램도 너무 알차고 유익했고요. 다음에 또 이용하고 싶어요.”

이 외에도 하얏트 리젠시 제주는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 고객의 편안한 여행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층에 키즈 코너를 마련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유아 고객과 함께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서는 VIB(Very Important Baby) 서비스도 제공한다. 투숙 시 VIB 프로그램을 예약한 고객에게는 여행 할 때 휴대하기 어려운 유아용 침대, 욕조, 변기 커버와 유모차 등을 대여해 주고 무료 이유식 쿠폰까지 제공하므로 세프들이 직접 만드는 이유식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아기와 어린이도 소중한 고객으로 여기며, 가족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노력하는 세심한 서비스는 하얏트 리젠시 제주를 계속해서 방문하게 만드는 원동력일 것이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로 떠나는 여행**  
제주 바닷가에서의 특별한 웨딩과 여러 가지 액티비티, 그리고 힐링이 공존하는 곳. 어린이를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과 가족 고객을 위한 사려 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얏트 리젠시 제주는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에 머무는 가장 큰 특권은 푸르른 제주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저녁을 먹고 배가 부르다 싶으면 나서는 중문해수욕장으로의 산책, 아침에 눈을 뜨면 객실 창 너머로 보이는 제주의 눈



신뢰할 만한 전문 컨시어지의 진행



제주 바다에서의 특별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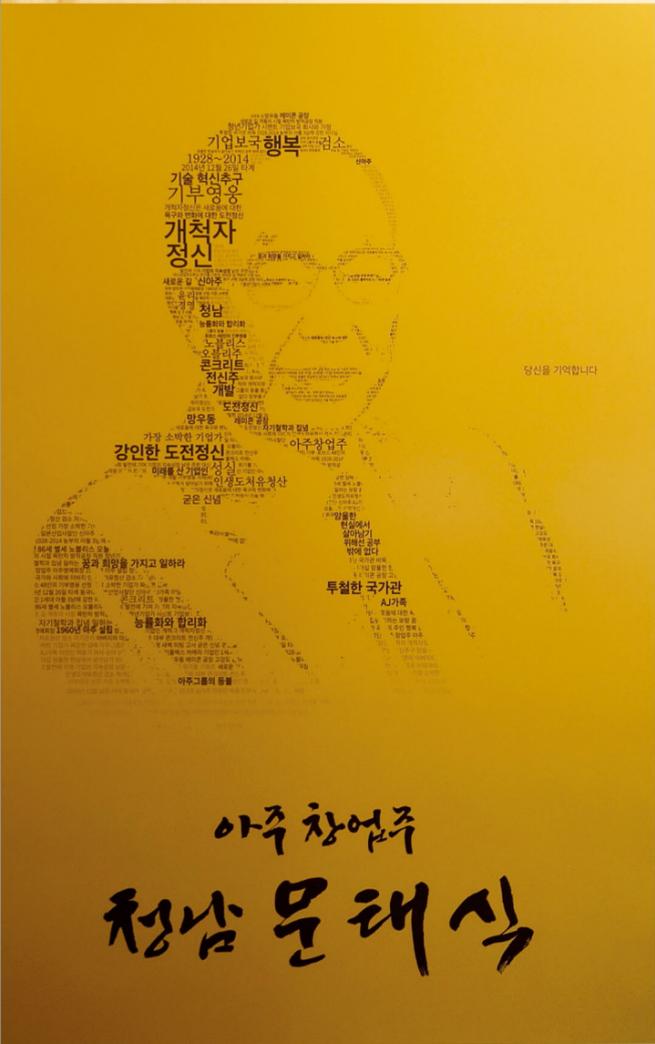
부신 바다, 테라스 카페와 오미 마켓 그릴 등에서 제주의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하며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와 맛있는 식사. 하얏트 리젠시 제주에서의 숙박은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바다가 보이는 객실에 '머무르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작지만 큰 차이를 체감하게 한다. 제주의 바다가 감탄사를 내뱉게 한다면, 제주의 푸른 숲은 거친 숨을 차분하게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전한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의 산책로는 올레 8코스 일부로, 트레킹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아무 목적 없이 훌쩍 나서도, 숲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산책로가 리조트 근처에 가득하다.

인터내셔널 체인 리조트로서 제공하는 글

로벌 수준의 서비스, 객실에 누워 눈을 감으면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공간'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하얏트 리젠시 제주로 호캉스를 떠나 보는 건 어떨까?

하얏트 리젠시 제주 웨딩 상담 및 캠프 프로그램 예약  
전화 064-733-1234  
이메일 jeju.regency@hyatt.com  
홈페이지 jeju.regency.hyatt.kr

# 아주 좋은 꿈터, 함께 심고 키워 가는 꿈



## 人生到處有青山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다 보면  
언제든지 기회는 온다.

'아주 좋은 꿈터'가 자리한 이 곳은 故 청남 문태식 아주 창업주(1928~2014)께서 태어나시고 생전에 거주하셨던 생가(生家) 터입니다. 그리고 1990년에서 2000년 초까지는 집이 없던 젊은 직원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문태식 창업주께서 타계(他界) 하신 직후, 아주는 이 곳에 건물을 세워 지역 사회 아동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키워,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담아, 아주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아주복지재단에 기부를 하였고, 2017년 8월 1일 '아주 좋은 꿈터'라는 멋진 배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이 창업주의 생가를 그대로 복원하여 보존하거나, 역사관·임직원 교육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청남 문태식 창업주께서는 한국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조국을 재건하는데 "무엇이든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라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일념으로 '아주(AJU)'를 설립하셨고, 「인생도처 유청산」(人生到處有青山),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다 보면 언제든지 기회는 온다"이라는 철학을 가슴에 품고 사업에 임하시어 큰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앞으로 '아주 좋은 꿈터'는 이곳을 찾는 많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그루터기가 되어, 아주 행복한 세상을 열어 가는데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꿈꾸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 꿈을 발견하고,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아주 좋은 꿈터'는 2017년 8월 문을 연 이후 지역 사회, 주민, 아동과 함께 행복한 상상을 이어 왔다.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세상을 만날 준비를 하는 안전한 울타리, 좋아하는 일을 찾고 진로를 모색하는 놀이터, 지역 주민들의 삶에 여유를 더하는 열린 사랑방. 동대문구 지역 주민과 꿈터지기들이 아주 좋은 꿈터에 함께 심고 가꿔 온 푸른 꿈 이야기가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를 반긴다.

글 유재원 사진 아주

### +아주 좋은 꿈터의 세 가지 프로그램

 반짝반짝 빛나라, 꿈 찾기 초등학교 4~6학년 학생(10명 내외)을 대상으로 자신의 꿈을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

 꿈을 더 크게, 대학생 멘토링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멘토들과 함께 다양한 학습은 물론 구체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모두의 꿈으로, 꿈꾸는 작은 도서관 3,000여 권의 책을 마련해 놓은 열린 도서관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는 공간

### 오랜 시간 꿈꿔 온 교육과 문화의 공간

“예술아 안녕? 예술이 맞지? 어제도 왔었다면 서, 오늘도 책 빌리러 왔어?”

“네! 이거 다 읽어서 다른 책 빌리려고 왔어요!”

난데없이 강풍이 불던 어느 겨울 오후, 거 리엔 사람이 없었는데 ‘아주 좋은 꿈터’에 들어 서니 기분 좋은 북적임이 느껴졌다. 바람을 맞 고 왔는지, 불이 새빨간 아이들이 곳곳에 모여 책을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시 간을 보내고 있었다. 책을 빌리러 왔다는 아이, 꿈터 신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하러 왔다 는 아이, 집에 있기 심심해서 놀러 왔다는 아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모여 꿈을 키우고,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을 담아 지은 이 공간과 잘 어울리는 따뜻한 풍 경이었다.

2017년 8월 1일 문을 연 아주 좋은 꿈터 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故 청남 문태식 아 주 창업주의 생가 자리에 문을 연 교육 문화 공 간이다. 살아생전 ‘국가와 사회에 무엇이든지 이바지하겠다’는 사업보국의 이념으로 아주를 창립한 창업주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 해 노력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 믿었다. 특히 어려울 때 일수록 인재 양성에 힘써 나라를 부강하게 해 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기에 교육 사업 에 대한 열의가 높았다.

2014년 12월 창업주 타계 후 동대문구에 있던 생가가 지역 사회에 기부되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인 듯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 하는 교육 센터로의 개발이 확정되었다. 운영

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아주의 비 영리 사회복지법인 아주복지재단이 맡게 되었 고, 지역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렇게 2017년 8월 아주 좋은 꿈터의 개관식이 열렸다. 자신과 두 형제 가 태어나고 자라며, 꿈을 키운 자리의 새 출발 을 지켜보던 아주 문규영 회장은 남다른 사회 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주 좋은 꿈터는 문태식 창업주의 숭고 한 열정이 온전하게 발휘되어 건립된 곳입니 다. 이곳을 찾는 많은 아동, 청소년이 더욱 건 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좋은 꿈터가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는 든 든한 그루터기이자 배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멋진 교육 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지역, 주민, 아동의 꿈이 피어나는 곳

2018년 1월, 오픈 6개월째를 맞이한 아주 좋은 꿈터에서는 새해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꿈터지기들은 6개월간 파악한 지역과 아이들의 특 징, 경험한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새해 프로그램 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다고 했다. 지 역 사회 관계자, 학부모, 아동들을 만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 아동이 다 함께 꿈을 찾고 키워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주 좋은 꿈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 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참 신기하고 요묘한 곳이에요. 시장도 있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



1 | 2

1 아주 좋은 꿈터의 기와 담장

창업주의 생각 기부에 대한 의미를 이어 가기 위해 생가 철거 당시 온전한 기와를 골라 대나무와 어우러진 기와 담장을 조성했다

2 함께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

아주 좋은 꿈터에서는 운동회, 체험 활동, 예술 활동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 있고, 공장 지역도 있고, 거주 지역도 있어요. 다양한 특징이 공존하는 지역인 만큼 아이들과 주민들의 특징도 다양하죠. 저희가 처음 문을 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지역에 잘 녹아드는 것이었어요. 요즘엔 복지 사업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 아동들에게 진짜 필요한 일'을 파악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주 좋은 꿈터만이 할 수 있는 일들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씩 발견하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려고 해요."

꿈터지기인 아주복지재단 전승배 매니저는 그간의 고민을 전했다. 타 복지재단,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보다 더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찾아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지역 주민, 사회복지단체, 학교장, 관공서 관계자들을 만나 왔다고 했다. 앞으로는 지역, 유관 기관과 좋은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탄탄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와 같은 공간을 가꾸어 나가고 싶다는 의지도 전했다.

동시에 아주 좋은 꿈터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꿈터를 찾고,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즐거움 구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

다. 꿈터와의 관계는 결국 꿈터지기와의 관계라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각별한 기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김진영 매니저는 6개월 동안 운영했던 꿈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성과 고민을 동시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꿈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 각자가 가진 가능성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즐거움 동기'를 마련해 주고자 노력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해 본 경험이 없는 친구가 대부분이었기에 자신을 알아 간다는 것에 집중했죠. 게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낱말을 모아 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기도 하면서 나를 알아 가고 꿈을 찾아 가는 과정이 어렵지만 즐겁고 설레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시간이었어요. 새해에 진행하는 2기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시작이죠. 즐겁게 발견한 각자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체적 진로로 이어 갈 것인지를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고 싶어요. 쉽지 않겠지만 함께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2명과 함께 진행해 본 꿈 찾기 프로그램은 2018년 새해부터,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진로



로 연결하며, 직업 체험을 통해 본격적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해 보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발전시켜 운영할 예정이다. 꿈 찾기를 시작한 아이들은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학생들의 도움으로 기초 학습 지도를 받는 것은 물론, 전공에 관한 다양한 체험도 함께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든든한 형, 누나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멘토링 프로그램 또한 올해부터 시행해 꿈꾸는 아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앞으로 멘토로 활약할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친구들 역시 새해를 맞아 의욕적인 다짐을 전했다.

"꿈터와 함께 반년의 시간을 보내며 저 또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기업이 지역과 상상하며 함께 어울리는 꿈입니다. 꿈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사회봉사단 친구들에게는 배움과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을 것 같아 설렙니다. 건강한 파트너십으로 건강한 지역 사회를 가꿔 가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꿈터는 인근 아동들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활짝 열린 편안한 공간이 되어 줄 것이다. 공간 전체를 도서관으로 꾸며 놓아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했으며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해 선보일 예정이다. 그렇게 공간을 찾는 지

역 주민이 많아지면, 좀 더 생각을 모아 바자회, 장터 등 크고 작은 동네 행사를 함께 만들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꾸러 나갈 계획이다.

설레는 표정으로 올해의 계획을 이야기하던 꿈터지기들은 중간중간 전화 통화와 아이들 맞이로 분주해 보였다. 아직 할 일이 많은 말을 거듭 반복했지만, 6개월의 시간 동안 쌓아둔 이야기도 충분히 많아 보였다. 꿈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아이, 용돈을 모아 선생님들과 함께 먹겠다며 봉어빵을 사 오는 아이, 꿈터에서의 프로그램에 꼭 참가하고 싶다며 자신이 고학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아이. 아이들은 벌써 꿈꾸기를 시작한 것 같았다. 이런 소소한 꿈을 바탕으로 꿈터지기들 또한 꿈을 꾸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학생들이 꿈터를 자유롭게 오가며, 자발적인 청소년 동아리를 운영하는 날이 오기를, 언젠가 지역 주민이 교사가 되어 문화·예술 관련 수업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강당 공간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며 더 큰 꿈을 키워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으니 말이다. 이렇게 모두가 꿈을 꾸는 공간, 함께 꿈꾸는 법을 천천히 배워가며 모두가 함께 자라는 공간. 아주 좋은 꿈터가 불러올 봄날은 유난히 따뜻할 것 같다.

3 | 4

1 아주 좋은 꿈터 개관식

2017년 8월 1일 배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교육 문화 공간, 아주 좋은 꿈터의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2 꿈터에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아주 임직원들은 아이들에게 전달할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희망 카드에 적어 아주 좋은 꿈터에 전달했다

아주 좋은 꿈터 방문 정보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16가길 7  
연락처 02-927-1270  
운영 시간 아주 좋은 꿈터 10:00~19:00  
꿈꾸는 작은 도서관 10:00~15:00

# AJU NEWS

Volume 50 아주 뉴스

「아주좋은날」 2018 NEW YEAR

www.aju.co.kr

## 【아주】 2018년 성장하는 아주, 새로운 도전의 해로!



2018년 1월 2일 '2018 무술년 아주 시무식'을 청남빌딩 17층 AJU인재다움에서 열었다. 시무식의 첫 순서는 최고 사업장과 핵심가치 실천리더 포상식이였다.

시상에 앞서 포상자들의 노고가 담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그들의 공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 사업장에는 아주산업 광명사업소와 상암사업소가 선정되어 2017년 사업 목표 달성에서 타 사업장의 모범이 되었음을 인정받았다. 핵심가치 실천리더에는 아주산업 조학록 팀장, 브이샘 김지수 매니저, 아주네트웍스 박장우 본부장, 아주호텔 앤리조트 리처드 창 리 매니저가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포상식이 끝난 후에는 아주인들의 새해 다짐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다음으로 문규영 회장의 신년사가 이어졌다. 문 회장은 저성장 시대에 함께 지속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 아주인이 실천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전했다. 첫째, 위기를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갈 것, 둘째,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예의 주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셋째, 아주만의 혁신 방법인 'ANT 경영'을 빠르게 정착시켜 창의적으로 협력하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쓸 것, 넷째, 리더와 매니저들이 함께 만드는 수평적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ANT 경영'을 실

천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 더불어 2017년 최선을 다한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보냈다.

이어서 문 회장은 "위기는 긍정적 자극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도전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만의 일하는 방법인 'ANT 경영'을 실천하며 수평적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아주가 됩시다"라는 말로 2018년에도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끝으로 무술년의 주인공인 개띠생 아주인들과 함께 떡 케이크를 커팅하고, "2018년 성장하는 아주!"를 힘차게 외치며 새해를 맞았다.

## 【아주】 중랑구에 실천하는 아주 큰 사랑, 청남공원 착공식

2017년 12월 26일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서 '청남공원'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청남공원은 2013년故 청남 문태식 아주 창업주가 중랑구에 400억 상당의 사재를 기부한 것을 계기로 조성되기 시작한 공간이다. 2016년 9월 공원 부지가 국토교통부 환경문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기부 부지 27만㎡ 중 5만 5,000㎡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착공식에는 문규영 회장을 비롯해 아주, 신아주, AJ가족 경영진 등 50여 명의 범아주 가족과 나진구 중랑구청장 및 중랑구 주민들이 함께했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중랑구에서 시작된 아주는 국내 최고의 건자재 업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실천하는 기업입니다"라고 말하며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문 회장은 "앞으로도 아주는 중랑구와 함께 더 많은 지역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중랑 구민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는 말로 답했다.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조성 공사에 들어가는 청남공원은 약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친 뒤 개장할 예정이다. 청남공원은 친환경 숲 콘셉트로 '자연 체험의 숲'이라는 부제를 달고, 향후 안전을 고려해 연령별로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착공식이 끝난 뒤 문규영 회장과 아주, 신아주, AJ가족 경영진은 곧바로 남양주 선영

을 찾아故 청남 문태식 창업주의 타계 3주기 추모식을 가졌다. 매해 추모식 때마다 창업주의 개척자 정신과 사업보국의 이념을 되새기는 아주인들은 2017년 추모식 자리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 사업보국, 창업주의 정신을 잇는 아주인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아주】 연탄 나누기 행복 더하기, '제13회 사랑의 부싷물 연탄 나눔 행사'

2017년 11월 28일 아주의 아름다운 전통인 '제13회 사랑의 부싷물' 행사가 진행됐다. 사랑의 부싷물은 저소득층 주민이나 독거노인에게 연탄과 쌀, 유류(쿠폰) 등을 지원하는 아주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13년째 그 온기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는 2017년 8월故 청남 문태식 창업주의 생가를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 만든 '아주 좋은 꿈터'가 위치한 동대문구를 봉사 지역으로 선정해 지역사회의 행복과 더불어 성장하고자 하는 아주의 진심을 전하고자 했다.

이날 자리에 모인 아주 임직원은 총 78명. 앞치마와 토시, 장갑을 차례대로 착용한 아주인들은 본격적으로 5,700장의 연탄 배달에 나섰다. 2017년 사랑의 부싷물은 연탄 나눔 외에도 연탄 1장당 650원씩을 책정, 본인의 나이만큼 연탄을 기부하는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했



다. 총 170여 명이 이벤트에 동참했고 700만 원 상당의 성금이 모였다. 이로 인해 연탄 1만 장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웃을 향한 아주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2017년 사랑의 부싷물 행사를 통해 아주

가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파주시·고양시·용인시, 제주시 등에 지원한 연탄 수는 총 3만 3,000장. 13번째 사랑의 부싷물 역시 아주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아주] 미래를 꿈꾸는 자리, 아주 57주년 창립기념행사 ‘내일을 디자인하다 AND 2017’**

아주는 2017년 9월 1일 본사 청남빌딩 17층 AJU인재다움에서 아주 57주년 창립기념행사 ‘내일을 디자인하다 AND 2017’을 열었다. AND는 AJU Never-ending Dreams의 약자로, 2016년 처음 시작된 아주만의 스토리텔링 콘퍼런스다. 매해 열리는 창립기념행사를 화려한 이벤트성 행사 대신, 아주 구성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채워가고자 했던 아주는 직책과 사업부에 상관없이 여덟 개 팀을 선정하여 도전과 혁신의 의미가 깃든 이야기를 공유하고 창업 정신을 되새긴다.



아주산업 이현희 매니저와 아주호텔엔리 조트 서승용 매니저의 무대 인사로 시작을 알린 AND는 가장 먼저 반가운 얼굴들을 소개했다. 행사 전날 한국에 도착한 베트남, 캄보디아 아주산업 해외법인 소속 현재인들은 현지에서 가져온 기념 선물을 증정하며 행사에 온 기를 더했고, 아주의 새 가족이 된 공영해운, MTCOM 구성원들도 자리에 함께해 57주년 창립기념일의 의미를 나눴다.

여덟 팀의 발표에 앞서, 문규영 회장은 아주가 57번째 생일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모

두 아주 임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덧붙여 “성장을 위해서는 도전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주가 창업주의 개척자 정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당부로, AND의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서 여덟 팀의 도전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주산업 양우종 팀장이 아주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성장한 여정을 소개하고, 아주복지재단 전승배, 최은선 매니저가 ‘아주 좋은 꿈터’를 어떤 꿈으로 채워 나갈 것인

지, 그 도전의 시작을 공표했다. 발표 중간, 아주와 대학생 간 협업 프로젝트였던 ‘Creative A’ 2기도 아주의 기업문화 스토리가 담긴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꿈을 향해 도전하고 맘 흘리며 미래를 찾아가는 행복한 이야기로 채워진 AND는 각자의 도전 스토리를 적어 미래로 날려 보내는 ‘중이비행기 날리기’ 세레머니로 마무리되며, 앞으로 계속될 서로의 도전을 응원했다.

**[아주복지재단] 짧지만 큰 힘이 되는 여행, ‘제18회 아주 특별한 여행 - 서울 투어’**

아주복지재단이 ‘제18회 아주 특별한 여행-서울 투어’를 2017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수도권 지역 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아주 특별한 여행’은 자폐성 장애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여행’을 통해 ‘심’과 ‘힐링’을 선물하는 아주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제주도와 서울에서 번갈아 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여행 첫째 날, 어머니들은 한복을 입고 북촌 한옥마을을 탐방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청와대 사랑채를 구경한 뒤 남산 N-서울타워에 올라 서울 경치를 만끽했다. 또한 2인 1조가 되어 아주복지재단이 제공한 운누리 상품권을 들고 광장시장을 방문했으며, 뮤지컬

<벤허>를 관람했다. 둘째 날에는 창덕궁 후원과 서울로 7071, 문화역서울 284를 둘러보며 1박 2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하루 24시간 장애 자녀를 옆에서 돌봐야 하는 어머니들에게 여행

은 선뜻 나서기 힘든 특별한 일이다. 아주복지재단은 여행 기간 동안 아이를 맡아주는 돌봄 서비스를 준비하여 어머니들이 마음 편히 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아주] 따뜻한 동행, ‘2017 제10기 아주봉사단 베트남 봉사활동’**

아주봉사단은 2017년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5박 7일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 10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해외 봉사 활동을 전개해 온 아주는 2017년 봉사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층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활동 지역 및 내용에 변화를 주었다. 먼저 지역의 경우 늘 가까이 있는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아주의 사회공헌활동 기조에 맞추어 아주의 해외 사업장이 있는 베트남의 동나이성 지역을 선택했다. 봉사 내용의 측면에서는 베트남 현지 아동들을 위한 교육 봉사에 집중하며 보다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



아주봉사단의 첫 번째 활동은 두언겻 유치원 증축 기공식 참석이었다. 이곳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나 파손된 부분이 많았고, 교실이 부족했다. 아주는 두언겻 유치원에 교실 두 곳과 화장실, 식당 증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주봉사단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치

된 공사 자재를 청소했고, 이후 유치원 벽 페인트 칠과 정원 가꾸기 작업을 도왔다. 봉사단은 두언겻 유치원에 이어 빈탄 유치원에서도 봉사를 이어갔다. 정서적 교감을 위해 유치원 벽에 벽화를 그리고 한국 전래동화를 베트남어로 번역해 만든 동화책 500여 권을 선물했다. 또한, 아동들과 함께 탈 만들기, 미니 운동

회 등을 함께 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1일에는 아주 베트남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재인들과 연대감을 쌓는 시간도 가졌다. 진정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까지 고려하며 세계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아주. 그들의 실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얏트리젠시제주] 하얏트 리젠시 제주, ‘2017 제주관광대상’ 종합대상 수상**

하얏트 리젠시 제주는 2017년 10월 24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2017 제주관광대상’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7 제주관광대상은 제주 관광의 성장을 이끌고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기업이나 단체에 주는 상으로, 제주 제민일보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

한다. 이번 종합대상 수상을 통해 하얏트 리젠시 제주는 최고의 숙박 시설로서의 가치는 물론, 제주의 문화를 세계인에게 소개하는 제주관광 도우미로서의 역할까지 인정받았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는 최근 국제 관광 도시로 주목받는 제주의 위상에 발맞춰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 국제 행사와 비즈니스 미팅 및 외부 케이터링 행사 등을 진행하며 최고의 글로벌 호텔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주 유일의 인터내셔널 체인 호텔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서비스를 선보이는 하얏트 리젠시 제주는 앞으로도 서양의 합리성과 한국의 정서를 결합한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아주] 2018 아주 캘린더, 일상에서 건져 올린 여유와 행복**

매년 일상에 온기를 더하는 예술 작품을 선정해 캘린더를 제작해 온 아주가 2018 캘린더를 공개했다. 2018 아주 캘린더는 거실의 풍경, 공원의 한때, 거리의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 속 풍경을 담은 톤의 수채화로 그려 내는 뉴욕의 일러스트레이터 케이틀린 맥걸리Caitlin McGauley의 작품 12점을 담아 우리 삶의 여

유와 아름다움을 전한다. 영감을 얻기 위해 산책을 즐기고, 여름이면 발코니에 앉아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케이틀린 맥걸리의 작품은 도시 생활에 지친 우리의 마음에도 산책과 같은 즐거움과 여유를 선물한다. 아주 캘린더는 앞으로도 좋은 예술 작품을 소개하며 우리의 일상에 기쁨을 선물하려 한다.



독자들과 소통하는  
아주가 되겠습니다

김황민 님 enjoy plus



빨래 건조대에 양말을 짝 맞춰 널어 놓았는데 다음 날 보면 한 짝이 안 보였어요. 이상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같은 일이 반복 되더군요. 알고 보니 범인은 우리 집 강아지 공이더라고요. 귀여워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짝 잃은 양말들 모두 공이에게 줘야겠습니다.

이치현 님 word's view



“나는 별을 마시고 있어”라고 외친 돔 페리뇽의 이야기가 재미있었습니다. 샴페인의 맛을 ‘별’로 표현한 것, 정말 이해가 되지 않나요? 빛나는 색이며 오묘한 기포며, 별과 흡사하게 빛나기까지 하잖아요. 맛있는 샴페인을 누군가와 같이 마신다면 더 맛이 좋고 즐겁겠죠?

이미연 님 culture and the city



무주 여행 칼럼이 좋았습니다. 낭만적인 순간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무주산골영화제’는 사진으로도 숲속의 아늑한 느낌이 확 전해져서 꼭 가 보고 싶었습니다. 국내 여행지를 이렇게 정성껏 소개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복량 님 aju sharing



‘제17회 아주 특별한 여행’ 기사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중증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 아주복지재단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어머니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조경환 님 scene of object



영화 속 레이벤은 주인공의 모습을 더 강렬하게 완성시킵니다. <레옹> 속 선글라스는 카리스마를 표출하는 도구였고,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레이벤은 도도한 멋을 보여 줍니다. 멋과 더불어 눈을 보호해 주는 레이벤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이춘성 님 aju sharing



농업융수 긴급지원 기사에 눈이 갑니다. 레미콘 차량을 이렇게 사용하다니 기발하면서도 대담하여 박수를 치게 됩니다. 전국의 땅과 산이 타들어 가는 듯한 혹서에 시달릴 때 하늘만 쳐다봐야 했던 농민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아주좋은날'을 위해 의견을 보내 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애플트리태일즈 도서  
김종신 님 경남 진주시 하대로, 이미연 님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성애선 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위복량 님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3만 원권)  
이치현 님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 김황민 님 전남 광양시 영수길, 이춘성 님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조경환 님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아주좋은날’이 50호를 맞아 독자 여러분께 자그마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림엽서를 액자에 끼워 잘 보이는 곳에 놓아 두고 매일 감상해 보세요. 문화의 향기와 함께 아주 좋은 일상을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를  
만반한  
이것  
이제  
이공일팔을  
새날  
이공일팔을  
이공일팔을  
이공일팔을

